

정책자료 2004-01

부모 안전교육자료 개발  
- 가정내 안전을 중심으로 -

서문희 최은진

박희정 장시원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 머 리 말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권 보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은 가정이고, 이러한 가정은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안전사고의 50~6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내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구조적이나 물품의 결함보다도 부모나 아동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로, 가정내 환경 조성자로, 자녀에 대한 모델 및 교육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가정내 아동안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위한 안전 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설정곤 과장, 한상균·양동교 사무관, 김정희·박춘서 담당에게 감사하고 있고, 자문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준 임응수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장, 권재익 한국소비자보호원 홍보실장, 조갑출 적십자간호대 교수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를 읽고 좋은 의견을 준 송태민 건강증진개발센터 소장과 송현중 책임연구원에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4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 목 차

요 약 .....	9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자료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	25
제2절 자료 개발 방법 .....	27
제3절 용어의 정의 및 자료의 범주 .....	27
제2장 이론적 배경 .....	28
제1절 안전 관련 이론 .....	28
제2절 안전교육 .....	32
제3장 우리나라 아동안전 현황 .....	41
제1절 우리나라 아동안전 정책 .....	41
제2절 아동 안전사고 사상 실태 .....	51
제3절 시사점 .....	63
제4장 외국의 안전 관련 정책 .....	64
제1절 외국의 안전 관련 정책 .....	64
제2절 외국 안전 관련 정책의 시사점 .....	87
제5장 안전교육 프로그램 .....	88
제1절 안전교육 .....	88
제2절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례 .....	93
제6장 부모 안전교육 자료 개발 .....	106
제1절 기본방향 .....	106
제2절 교육자료의 개발 과정 .....	107

제3절 교육자료의 구성 및 내용 .....	109
제4절 활용 및 기대효과 .....	130
제7장 결론 .....	132
참고문헌 .....	134
부 록 .....	141

## 표 차례

〈표 3- 1〉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기준 .....	42
〈표 3-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45
〈표 3- 3〉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장소 .....	52
〈표 3- 4〉 가정내 안전사고 영역 .....	53
〈표 3- 5〉 연령별 사고 상위 물품 .....	54
〈표 3- 6〉 연령별 사고 상위 시설물 .....	54
〈표 3- 7〉 사고유형과 사고부위 .....	55
〈표 3- 8〉 가정내 안전사고 유형 .....	56
〈표 3- 9〉 각종 사고사의 사망자수 및 사망률(2002년) .....	57
〈표 3-10〉 연령층별 자동차 사고 사망자 추세 .....	57
〈표 3-11〉 사고시 상태별 어린이 자동차 사고 현황(2002년) .....	58
〈표 3-12〉 중학생 이하 어린이 자동차 사고 현황(2002년) .....	58
〈표 3-13〉 위해내용별 사례 .....	59
〈표 3-14〉 위해원인별 사례 .....	60
〈표 3-15〉 위해장소별 사례 .....	60
〈표 3-16〉 7~10세 아동의 안전사고 사례 .....	61
〈표 5- 1〉 만 4세아 안전 보육과정 .....	90
〈표 5- 2〉 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활동자료 .....	94
〈표 5- 3〉 활동유형별 활동내용 .....	95
〈표 5- 4〉 생활주제에 따른 부모안전교육자료 .....	96
〈표 5- 5〉 초등학교 교사용 ‘어린이 안전교육 지침서’ 중 ‘어린이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 교육 지도의 실제’ 부분 .....	98
〈표 5- 6〉 셰이프키즈 코리아의 어린이 및 부모 안전교육 자료 .....	99

〈표 5- 7〉	곽은복의 영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	100
〈표 5- 8〉	정부 및 민간 운영 사이트 .....	102
〈표 5- 9〉	미국의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	105
〈표 6- 1〉	가정내 안전사고 종류 및 원인 .....	111

## 그림 차례

[그림 2-1]	사고발생에 대한 역학적 3자 관계의 예방전략 .....	30
----------	--------------------------------	----

## 요약

### 1. 서론

#### 1. 자료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므로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인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고 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자료를 개발, 제작하여 보육시설 유아 및 어린이 이용기관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급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방법

- 수행방법은 주요 통계, 기존 연구 자료 수집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문회의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안전 관련 이론

- 사고의 원인을 사고발생요인별로 분류하면 인적요인, 기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Miller, 1995). 일반적으로 사고의 88%는 인적 요



인에 의한 것이다(Heinrich, 1980).

- 역학분석적 이론으로는 사고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3가지 요인, 즉, 주체(host), 매개물(agent), 환경(environment)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 Robertson C.(1998)에 의해서 제안된 ‘상해위험 ABC’는 A는 부속물(Accessory), B는 행동(Behavior), C는 상해를 둘러싼 상황(Conditions)을 의미한다.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상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했고, 발생한 상해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다음에 발생하는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 2. 안전교육 및 유아 안전교육

- 유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 안전교육은 모든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 및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행동에 노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기는 가장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라 하겠다.
- 유아안전교육의 방법은 시연(Rehersal), 토의, 문제해결, 역할놀이,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 부모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자녀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
  - 아동안전과 관련하여 부모는 보호자, 환경 구성자, 교육자, 역할 모델자, 자녀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아동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Ⅲ. 우리나라 안전사고 현황

#### 1. 안전 관련 정책

##### 가. 우리나라 아동안전의 법적 근거

- 현행 아동 및 어린이 안전만을 다루는 법령은 없으며 여러 법규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개별법규로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소방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건축법, 교통안전법, 소비자보호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여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별 법령에서 품목별 또는 분야별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안전 관련 주관 부처

- 아동안전과 관련한 총괄 정부기구로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안전은 안전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만큼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식약청 등 많은 부처의 정책과 관련성을 갖는다.
-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2001년 5월 별도의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수원시의 “안전도시 수원”, 충청남도의 ‘청소년 비전 2002 계획’등의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밖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행정자치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등에서 분야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Safe Kids Korea, 한국어린이안전재단(씨랜드 천사의 손), 경실련(어린이 환경위원회), 한국어린이 육영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등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어린이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꼬마안전짱, 꾸러기안전일기, 어린이 안전학교 등에서 안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 아동 안전사고 사상 실태

### 가. 안전사고 발생 실태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병원으로부터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위해정보 4,752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56.1%는 가정, 23.9%는 공공시설이다.
  - 물품에 의한 사고가 시설물에 의한 사고보다 2.2배 정도 발생하고 있다.
  - 사고 유형은 추락/미끄러짐 사고 32.2%, 충돌/충격사고 25.5%, 베임사고 11.9% 순으로 이들 사고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002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자료에 의하면 119가 출동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4,637건인데 이중 58%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가정내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도 10명에 이른다.
- 한국여성단체협회가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정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62.8%가 자녀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이들이 응답한 사고 장소를 보면 방이 42.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거실·마루 19.1%, 화장실·목욕탕 14.3%의 순이다.

#### 나. 아동 안전사고 사망 실태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1990년 25.9명에서 2000년 14.8명으로 약 11.1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은 높다.
  - OECD 2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 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26명으로 최고 낮은 스웨덴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사고 사망률은 모든 연령층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수는 연평균 8.2%씩 감소하였다.
  - 2002년에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348건이 발생하여 461명이 사망하고 27,141명이 부상당하였다.

#### 3.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3년간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중 위해원인별, 위해내용별 및 위해장소별로 분석하여 안전사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사고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소방방재119와 공영방송인 KBS TV에서 최근 3년 동안의 7~10세 어린이의 안전사고 사례를 사고유형별로 발표하였다.

### IV. 안전교육 프로그램

#### 1. 유아기관에서의 안전교육

- 유치원 교육과정 중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등 5개 생활영역 중 건강 생활영역 및 사회생활영역에서 안전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표준보육과정은 아직 정식으로 공고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전은 매우 주요

한 부분으로 만4세아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생활 습관, 위험한 물건, 장소, 사람, 상황 등에 대한 이해 및 대처, 안전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 인지 및 자율적 적절한 대처, 가정,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타인의 안전 배려로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현장 체험 프로그램

- 안전교육을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시민 안전체험관과 어린이 안전학교, 어린이 교통공원 정도를 들 수 있다.

## 3.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례

-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를 위한 교통안전자료, 부모를 위한 안전교육자료, 운전자를 위한 리플렛을 발간하였다.
  - 교통안전교육 자료는 통학로 안전, 안전한 횡단장소와 방법, 날씨와 보행 안전, 놀이용 탈 것 안전, 버스이용안전, 승용차 이용안전의 6개 주제로 모두 21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부모 안전교육자료는 가정통신문, 가정에서의 활동자료와 부모회 강의 자료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통신문은 35개이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활동자료는 9개이다. 한편 부모회 강의 자료는 교통안전과 화재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발행 초등학교 교사용 어린이 안전교육 지침서' 중 '어린이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 교육 지도의 실제'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지도내용을 예시적으로 제시해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세이프키즈 코리아에서는 교통안전, 화재안전, 자전거 안전, 물놀이 안전, 학교안전, 가정안전, 스포츠안전, 중독안전, 질식안전 등 어린이 및 부모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 광은복은 특히 영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내용은 소중해요 등 10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의 위기 대처능력 및 안전사고 예방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3년 '사례로 살펴본 안전생활'을 발간하였다.

## V. 외국의 안전관련 정책 및 시사점

### 1. 외국의 안전관련 정책

#### 가. 일본의 안전관련 정책

##### 1) 제도

- 일본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위해방지 기준정비와 위해방지 확보 시책강구를 규정하고 이외 특정제품별 소관법규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 2) 안전교육

- 일본은 학교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학습과 안전생활지도의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 특히 교통안전은 1972년 중앙 교통안전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입각하여 교통안전 교육보급협회에서 개발한 「교통안전 교육 지침서」에 기초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일본에는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유아 교통안전교육 클럽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3~5세까지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 안전문화의 확산

- 1964년 각료회의에서 국민안전의 날(7월 1일)을 제정하고 총리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전국안전협의를 창설하였다.
- 안전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정립되어 있고, 민간이 안전문화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하여 소관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나. 영국의 안전관련 정책

##### 1) 안전 관련 제도

- 어린이 안전법(1989)은 유아들을 위한 가족 지원과 일상 보살핌과 교육에 관한 가이드 또는 규칙, 지방 사회 서비스 부서 및 어린이 건강, 안전, 복지 및 관련된 교육기관은 8세 이하 어린이 보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종사자 수, 보육원, 유치원, 운동장에 관한 안전기준)한다.
- 이외 1961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모든 소비자용 제품은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반 안전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장 건강과 안전법(1974) 및 건강 및 안전관리 규칙(1992), 식품안전법(1990) 및 식품안전규칙(1995) 등이 있다.
- 어린이 사고예방 재단, 전국소비자협의회(NCC) 등 민간단체가 있다.

##### 2) 안전교육

- 1992년 보건성장관은 “국가의 건강”(The Health of the Nation)백서에서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을 33%로 감소시킨다는 의도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해 건강교육의 일부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교육국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또한 1988년에 제정된 교육개혁법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학습내용 및 성취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과정이 균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 민간단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지원 하에 교통안전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영국에서는 1961년 민간기구인 왕실사고예방협회(RoSPA)에서 연령별 학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정과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특히 동 협회의 Tufty Club에서 3~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올바르게 정확한 교통행동 지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경찰은 상주학교연락관, 경찰도로안전관, 지역순찰관으로 분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 다. 미국의 안전관련 정책

##### 1) 안전 정책 및 제도

- 안전업무는 국가 보건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어린이 안전보호사업은 보건인적서비스부 산하의 국립상해예방조절센터 및 동 센터가 주도적으로 만든 다양한 분야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인 National Safe Kids에서 추진하고 있다.
- 1994년 어린이안전보호법(The Child Safety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다.
- 연방 모자보건국(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에서는 1993년 아동보육 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980개)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에는 치명적인 상해에 대한 기준(180개)을 제시하였다.
- 전국 어린이 안전예방 단체(National Safe Kids)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 화재와 화상안전, 익사사고예방, 중독과 쇼크예방, 추락예방 등 5개 영역의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과 연대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 2) 안전교육

- 1920년대부터 주에 따라 독자적인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사고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 3) 안전문화의 확산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풀뿌리 안전문화(Grossroot safety leadership), 안전인식의 달(Safety Awareness Month) 캠페인, 안전문화 혁명 워크숍 개최, 모자보건국 건강한 아동보육 캠페인(Health Child Care America) 등을 들 수 있다.

## 라. 스웨덴의 안전 관련 정책

### 1) 안전정책 및 제도

- 스웨덴은 아동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기존 법규 부합 정도 모니터링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건강복지부에서는 1989년 아동교육시설과 아동레저시설의 안전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 건축설계법(The Plan and Building Act)에는 어린이가 생활하는 건물에 대한 “어린이 안전 필요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아동레저센터, 아동도서관 등 주택과 비슷한 공간은 동 법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 상품안전법(The Product Safety Act)에는 위해제품의 판매금지, 주의경고 사항, 리콜, 위해제품의 수출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 안전교육

- 스웨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요람에서부터 시작된다.
  - 출산후 퇴원할 무렵 각 지방자치 단체는 어머니에게 자동차에 부착하는 'baby seat'를 보내주는데 이것은 9개월 동안 무료로 대여된다.
  - 국립도로안전협회에서는 만3세 아동에게 동화책과 퍼즐, 등 아동이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교재가 들어있는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소포를 집으로 배달해 준다.
    - 국립도로안전협회 내에는 1969년 아동 교통클럽이 조직되어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아이로 하여금 아이 주변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클럽에는 스웨덴 전체 인구의 1/4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활동의 하나로 국립아동환경위원회 (National Child Environment Council)가 '아동들의 일상 위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3) 안전문화의 확산

- 1954년 스웨덴 의학협회 소아과 분과가 적십자와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원회와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위한 협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운동단체, 회원, 정부, 관계이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외 어린이환경협의회, 소비자정책원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가장 중요한 법률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조직화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 마. 국제기구의 어린이 안전 강화 내용

- 국제기구에서도 EC 공중위생위원회의 「공중위생문제로서의 어린이 사고」

연구 보고서 발간(1972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어린이를 위해 안전조치 권고, 국제아동권리협약(1989), 세계보건기구(WHO) 어린이 안전 조치 등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2. 시사점

- 이상과 같은 외국 안전정책을 기초로 안전 관련 제도와 안전교육, 안전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선진국에서는 안전관련 독립법 또는 각종 다양한 개별법을 통하여 아동이 이용하는 물품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학교나 유아교육 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 각종 단체나 클럽 활동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VI. 부모 안전교육 자료 개발

### 1. 기본방향

-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 첫째, 자료의 활용 대상이 미취학 어린이를 둔 부모 및 보호자이기 때문에, 미취학 어린이는 발달 단계상 호기심이 많지만 행동조절능력이나 분별력은 부족하다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 둘째, 미취학 어린이의 주된 생활 장소가 가정임을 고려하여 내용을 가

정내 안전사고 중심으로 구성하되,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기본적으로 유의시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셋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이고, 안전이라는 가벼울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약간의 삽화는 포함하되 너무 화려하지 않은 톤을 유지하도록 한다.

## 2. 자료 개발 절차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자료 개발에 반영하였다.
  -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자료의 범주 및 방향을 설정하고, 2차례에 걸친 내용 검토가 이루어졌다

## 3. 교육자료의 구성 및 내용

### 가. 교육자료의 구성

- 자료는 도입부분, 본문 및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도입부분은 표지, 들어가는 말, 부모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수칙, 가정내 안전의 중요성, 본 자료의 목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 본문은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가정내 안전, 화상 및 화재, 중독과 질식, 교통안전, 놀이안전, 성폭력 및 유괴, 응급처치이다.
  - 셋째, 마무리 부분에는 어린이안전 관련 인터넷 추천사이트와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를 담도록 하였다.

### 나. 교육자료의 내용

#### 1) 도입부분

- 표지 제목은 『엄마 아빠, 나를 지켜주세요!』로 하고 부제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부모님 가이드북」을 추가한다. 집, 놀이터, 건널목, 골목 등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위험한지 잘 모르므로, 부모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 아차! 하는 순간 우리 아이에게 위험이 올 수 있으므로 엄마, 아빠가 지켜야 할 7가지 안전수칙을 제시한다.
- 도입부분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엄마, 아빠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본 자료의 목적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칼, 표백제 등 가정이 의외로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못한 물품들의 사례를 든다.

## 2) 본문

- 가정내 영역별 안전: 안전한 우리 집, 위험한 우리 집
  - 가정안전은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실현 가능하므로 먼저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부족한 부분의 정비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영역별로 주의할 사항을 담는다
- 화재와 화상
  -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한 화재에 의한 상해를 최소화하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화재의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환경에서 위험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어린이도 화재 및 화상의 원인을 알고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이에게 화재와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행동교육을 시켜야 하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지킴, 불이 나면,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대피방법 등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 중독과 질식
  - 어린이는 독성 화학물에 대한 구별 및 사용능력이 부족하고, 영아의 경우 손에 쥔 물체를 입으로 가져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장난감이나 고형음식이 잘못하여 갑자기 기도를 막아 유아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는 사고 역시 유아기에 빈번히 발생하며 1세 미만 영아 사망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교통안전

- 교통안전 자료가 별도로 많아 생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어린이 자신이 위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 안전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 놀이와 운동

- 어린이 놀이 사고는 여러 가지 장난감과 놀이 기구에 의해 발생하며 킥보드, 비비탄총, 툴러스케이트, 최근에는 힐리스 운동화 이용시에 발생한 사고들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어린이 놀이터 사고의 경우 미끄럼틀과 그네에서 사고의 20% 정도가 발생한다.
- 놀이와 운동할 때 조심할 내용을 실내놀이, 실외놀이, 동물에 대한 안전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 유괴와 성폭력

-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성인에 대한 복종이나 절대적인 신뢰를 당연한 것으로 교육받아 왔고, 자신에 대한 애정표현과 성 폭력적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을 이용해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주의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신는다.

□ 응급처치 요령

- 응급처치 영역은 목에 무엇이 걸리거나 물에 빠지는 등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출혈, 경도화상, 해충·동물 등에 물렸을 때, 중독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구성한다.

□ 마무리 부분은 안전 관련 사이트와 일상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

리스트로 만들어 수록한다.

#### 4. 활용 및 기대효과

- 개발된 “엄마 아빠, 나를 지켜주세요!”는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용 안전 교육 자료이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등 유아이용기관을 통하여 보급함으로써 부모가 직접 또는 교사가 부모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동안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VII. 결론

- 결론적으로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 인프라의 구축, 어린이 안전 문화 정착, 안전점검의 생활화,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 안전교육 재정 확보, 다양한 교구와 교수자료의 개발 및 보급,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실천과 활성화,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강화, 어린이 안전 지원체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과제가 된다.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자료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부모와 더불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니세프(2001) 조사에 의하면 OECD 2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6명으로 최고 낮은 스웨덴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국무조정실 안에 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및 이로 인한 사상자수를 줄이기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이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률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지 않아서 부모의 부주의로 일상생활 속에서 분별력이 부족한 아동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이다. 일반적으로 집밖에 비하여 가정은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도 의외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책상, 침대 등 가구나 물품에 부딪히거나 떨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며, 또한 가정에서 이용하는 각종 의약품, 표백제, 살충제, 세제 등 각종 화학제품은 소홀히 다룰 경우 호기심 많은 어린이가 입에 넣는 경향이 있어 중독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모니터병원으로부터 2001~2002년 3년 동안 수집한 안전사고의 56.1%가 가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많은 가정내 사고가 물품이나 시설상의 하자보다는 보호자의 부주의와 안전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의 경우 발달 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아직 신체 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정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녀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69.1%는 보호자의 실수, 17.8%는 자녀의 실수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모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 일이 부모의 최우선적인 임무이다. 즉, 부모는 사후 대책이나 처리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또한 아동이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른 습관이나 태도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가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거지고 아동에게 위해가 되는 요인들에 늘 주의하며 아동에게도 주의시키는 일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생활과 교육을 통하여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 유지, 사고와 재해의 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재와 미래에 걸친 자신의 심신 건강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된다.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은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실시하지만 가정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일은 부모와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항상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의하며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아동 스스로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므로, 부모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가정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부모 교육자료를 개발·제작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등 유아 이용기관을 통하여 보급함으로써 부모의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여 어린이 안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제 2 절 자료 개발 방법

가정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의 개발은 문헌연구와 정책자문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통계, 기존 연구 자료 수집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어린이 안전분야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제 3 절 용어의 정의 및 자료의 범주

본 보고서는 가정내 안전을 중심으로라는 부재를 붙였다. 가정내 안전은 좁은 의미에서는 집안에서 주로 가구나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국한된다.<sup>1)</sup> 이는 일반적으로 가정밖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화재는 소방서, 교통안전은 도로교통안전협회 하는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자료에 이러한 협의의 가정내 안전을 포함하되, 이외에 부모와 또는 혼자 놀거나 가까운데 외출하거나 하는 등 일생생활 속에서 부모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집 부근에서 일어나는 유괴와 어른이 없이 아동이 혼자 있는 집 등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 줄 수 있는 내용을 대부분 한 권의 리플렛에 담음으로서 아동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부모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가정내 안전사고 통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안전 관련 이론

#### 1. 안전 사고발생 요인

사고의 원인을 사고발생요인별로 분류하면 인적요인(human factor), 기계적 요인(mechanical factor), 환경적 요인(environment fact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Miller, 1995). 일반적으로 사고의 88%는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10%가 불완전한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의한 사고는 2%에 불과하다(Heinrich, 1980).

유아 안전사고는 성인의 보호나 감시가 철저한 영아기를 지나 단독 보행이 가능해지고 혼자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며 호기심이 증가하는 유아기 및 취학 전기에 많이 발생한다. 결국 유아의 안전사고는 가정, 보육시설, 기타 우리의 생활환경 어느 곳이라도 안전하지 못하거나 성인의 안전지도가 소홀할 때 일어날 수 있다.

#### 2. 안전 사고발생 이론

##### 가. 역학분석적 이론

사고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조종사였던 헤이븐(Haiven)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는 생리학 연구자로서 항공기나 자동차의 사고에 따른 사상자의 감소방안을 연구하다가 생체역학의 중요성을 확립했는데 그의 연구는 안전벨트, 에어백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자동차의 구조 등의 연구로 이어졌다.

그 후 사고연구는 사고발생을 전염성 질병과 흡사한 것으로 인식, 사고발생

의 메커니즘을 해명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이해에 사용했던 역학(Epidemiological) 분석법을 처음 도입한 Gordon(1949)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진보했다. 그는 사고의 발생은 질병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3가지 요인, 즉, 주체(host), 매개물(agent), 환경(environment)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이들의 완구에 의한 상해를 이 이론에 비추어 보면, 사고를 만난 아이의 상태(host), 사용한 완구의 상태(agent), 아이가 놀고 있던 주위 환경의 상태(environment)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 이론은 Haddon(1970)에 의해서 수정, 발전되었는데 그는 상해는 사람(host factor)과 에너지(agent and vehicle factors) 그리고 환경(environment factor)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행동, 매개물, 물리적인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상해원인의 단계(matrix)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역학적 접근은 상해감소를 촉진시키는 전략을 적용하는 기반으로, 상해는 발생횟수나 발생했을 때의 상해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다. 이들의 노력은 팜플렛이나 포스터 개발활동에 역점을 두던 사고방지대책을 사고재해발생에 관련되는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의 개선으로 바꾸어 나가게 하였다. 즉, 사고방지를 위한 계몽활동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에 따라서 사고방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현행 법률의 강화, 새로운 기술적 대책이나 제품의 공학적 변경, 대중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안전행동에 관련되는 교육과 행동의 변모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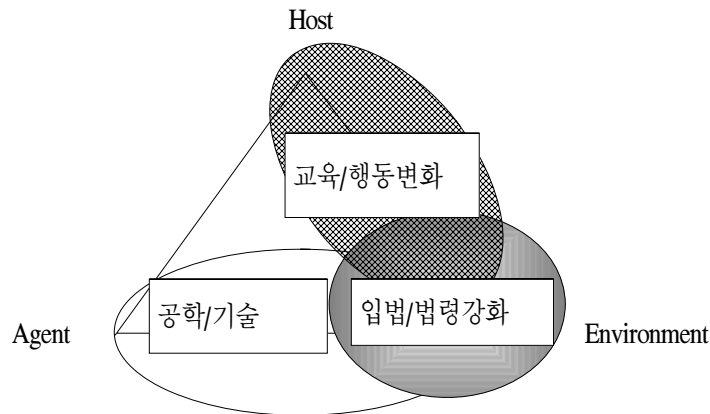
사람(host), 에너지(agent)와 환경(environment) 관계에서의 상해예방 전략을 살펴보면 전략선택이 제한된 대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교육과 행위변화는 사람(host)를 대상으로 하고, 입법조치와 법령화는 환경(environment)를 대상으로 하며 공학과 기술은 에너지 이동을 수정함으로써 에너지(agent) 내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 참조).

첫째로 교육·행위변화전략은 서클이 겹쳐지는 것처럼 환경 안에서 사회적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즉, 사회적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어서 사람(host)이 상해를 입기 쉬운 경향을 줄이게 된다.

두 번째로 입법조치와 법령의 강화전략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것은 개인의 행동이나 설계를 변화하게 하고 또는 환경적 위험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전략들을 상호의존적인 상승작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입법조치는 환경이 변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세 번째로 공학과 기술전략은 에너지 이동에 대해 agent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해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은 갑작스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용품과 같은 도구를 개발, 발전시킴으로써 상해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그림 2-1] 사고발생에 대한 역학적 3자 관계의 예방전략



자료: D. A. Sleer, G. Egger and P. Albany, "Injury as a Public Health Problem",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ustralia*, 1(2), 1991, pp.4~9.

이 세 가지의 전략은 보건의로 전문가들이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중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각 전략의 구성요소는 함축된 지역 사회기반 접근을 사용해서 상해예방을 위해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방지의 선각자로 일컬어지는 Heinrich는 산업재해의 발생요인을 5가지 도미노에 비겨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① 사회적 환경적 악조건,

② 개인적 결함, ③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 ④ 사고, ⑤ 상해의 5가지 말이 연속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므로 불안정한 상태나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재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6).

그러나 가정에서는 상업활동의 장과 다른 인적, 물적 환경이 있으므로 전술한 상해발생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 나. 상해위험 ABC 이론

Robertson C.(1998)에 의해서 제안되는 ‘상해위험 ABC’는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해석하는데 적절해 보인다.<sup>2)</sup> 그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상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한 상해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다음에 발생하는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A는 부속물(Accessory)로 상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위험과 안전장구의 부족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적이고 보호적인 전략과 실천이고, 교사나 성인이 그 위험을 제거할 때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

B는 행동(Behavior)으로 상해가 왜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요소이다. 행동은 아동의 행동과 성인의 행동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행동은 활성화된 행동이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다. 아동의 행동을 통한 사고는 부모가 아동의 예민한 관찰자가 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위험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행동은 대부분 비활성화된 행동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감독 부족, 안전지식 부족, 의사소통의 부족, 상황의 이해부족이 원인이다. 따라서 부모가 올바른 안전지식을 가지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실천할 때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C는 상해를 둘러싼 상황(Conditions)을 의미한다. 상해가 발생한 장소나 시간

2) 원 자료에는 보육시설에서의 상해에 적용하여 아동과 교사의 관계로 설명하였음.

은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상해는 특별한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쉽고, 어떤 일정한 시간에 상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동안 발생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상황과 관련되는 상해를 인식함으로써 더욱 경계하여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제 2 절 안전교육<sup>3)</sup>

### 1. 안전교육의 개념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는 그 포괄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안전교육이란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 및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으로 교육의 수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고율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태도 및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채문, 1994).

다음으로 예방적 의미를 담을 수 있다. 합리성, 능률성, 자동성, 편리성들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특성은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안전사고, 공해사고 등을 유발하게 되며 본의 아니게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거나 상해를 입게 한다. 따라서 안전교육이란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이러한 희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인 목적을 갖는다. 예방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안전교육은 평소의 생활을 통하여 신체적 부상이나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모든 요인을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예방하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

3) 여기서 안전교육은 유아 및 부모교육으로 한정하였음.

고,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예방적인 개념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경험 내용을 포함시킨 정의를 살펴보면, 안전교육이란 상해, 사망 또는 재산의 피해를 일으키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안전 행동에 기여하는 습관, 기능, 태도 및 지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총체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즉, 안전교육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해시키는 지식의 교육,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미리 예방하거나 신중히 행동하는 태도의 교육,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의 교육이 함께 포함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교육에 대한 여러 정의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안전교육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유아 안전교육이란 유아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지식과 태도, 기능을 익히게 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을 배우는 교육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6).

## 2 유아 안전교육

### 가. 유아 안전교육의 필요성

유아들은 성인과는 다른 지적,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해 성인과 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다. 유아기는 자기 조절 능력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어느 시기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모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는 일이 부모의 최우선적인 임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후 대책이나 처리보다 오히려 사고의 미연방지, 즉,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바른 습관 및 태도 형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 기능 등을 연마하여 늘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유아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유지, 사고와 재해의 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게 된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걸친 자신의 심신 건강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된다. 특히 안전에 대한 의식은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 사망률의 변동은 유아기에 발생하는 질병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아 사망의 주된 원인에 대한 최근 추이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 크게 감소하는 대신 사고에 의한 사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의학 발달이나 생활 수준 향상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으로 유아의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대신 사고가 유아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통계청이 밝힌 1~9세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사고이다(통계청, 2003). 사고의 발생 빈도를 그 원인별로 본다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추락, 익사, 화재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은 한해 250만명 정도이며 이는 유아 사망의 절반 이상에 이른다. 이와 같이 유아 사고와 그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율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유아 안전사고는 직접적으로는 육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가족 위기 및 해체를 유발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는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로 인한 미래 국가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손실은 국방·경제 등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며,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 및 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1~19세까지의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고 기대수명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기대소득의 현재까지의 기회비용은 5조 1122억원으로 추정(정영호, 2002)되며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권고안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해 소요되는 사고 후 수습비용(의료비용, 재산손해비용 등)은 사고 예방 비용(안전검사비용, 안전교육비용, 정보수집 및 처리 비용)과 비교하여 볼 때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안전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비안전 행동과 관련된다고 볼 때 대부분의 비안전 행동은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의 결핍에서 유발될 수 있으며, 그 요인은 환경적 요인, 기계적 요인 그리고 인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적 요인은 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즉,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이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부모와 교사의 안전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지도 소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유아의 불충분한 지식과 부적절한 태도로 인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아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각 사고별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환경을 개선하도록 법적인 조치나 제도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며,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시설과 설비를 완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에 대한 유아의 바른 인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유아의 자기 방어적 자세나 안전문제 대처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교육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나 태도는 단순한 지시나 감독에 의한 것보다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이기숙 등, 1997).

안전에 대한 교육은 개인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행동에 노출되기 이전에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기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유아는 이 시기에 주변 환경이나 대상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한다.

#### 나. 유아안전교육의 방법

##### 1) 시연(Rehersal)

행동적 프로그램인 시연의 교육방법은 안전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Ast, 1995)는 것이 밝혀졌다. 시연의 방법은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가정에서의 안전 및 보행자 안전기술을 학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Jones & Haney, 1981; Peterson & Mori, 1985; Rosenbaum & Drabman, 1981; Yeaton & Bailey, 1979) 이를 통해 유아는 비상상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증가되었다. Scott(1992)은 놀이, 운동, 자동차, 보행자, 위험한 물건, 물에 대한 안전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화, 시연, 실제연습을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올바른 안전행동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고 하였다.

##### 2) 토의

토의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것(강낙근, 1997)이다. 유아는 토의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생각을 알게 되며 안전과 관련이 있는 갈등 상황에서의 문제를 파악하여 생각을 함께 나누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게 된다. Pickle(1989)은 독극물에 대한 안전에서는 먹어서는 안되는 물질, 불에 대한 안전 영역에서는 소방서의 역할 알기 등에 대하여 토의기법을 사용하여 유아들의 안전의식을 확장하였다.

##### 3) 문제해결

문제해결 방법의 예로 Hughes(1992)는 4개의 비디오를 통하여 음식안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각 비디오의 중요한 장면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갈

등상황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유추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가설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Izzoni(1989)는 환경교육의 내용 중에서 깨끗한 물의 중요성에 대한 탐구과정으로 유아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물의 오염에 대한 실험과정을 통하여 왜 물이 오염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환원시킬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정 경험을 제공하였다.

#### 4) 역할놀이

역할놀이는 유아에게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유아에게 스스로 지닌 가치나 의견을 좀 더 분명히 깨닫게 하고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Clark과 Simmons(1986)는 역할놀이를 겸한 게임형태로 운영하는 안전수업을 통하여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에서의 안전개념을 향상시켰다. Freda(1994)는 아동학대예방훈련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는데 3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비디오를 따라 하는 역할놀이를 통해 학대예방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할놀이는 대인관계의 느낌, 태도, 기능 등이 필요한 교수 - 학습내용에 적합하므로 낯선 사람에 대한 안전태도, 성적학대예방을 위한 안전기술들을 습득하는데 유용하다.

#### 5) 모델링

Ast(1995)는 모델링이 안전행동의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유아들은 화재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통해 화재에 대한 안전행동을 습득하였으며 가정에서의 안전기술, 보행자 안전기술을 학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안전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는 기계적인 시범을 보이거나 그에 대한 유아의 단순한 모방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6)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실제와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직접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여러 분리된 경험을 유아들이 통합해 가는데 도움을 두게 된다. 유아들의 교통 안전행동의 형성을 위하여 교통공원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의상황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교통공원에서는 교통표지판, 신호등, 육교, 터널, 차도 등을 소형화하여 유아들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고, 육교를 건너며, 터널을 통과해 봄으로써 교통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교통안전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Rosenbaum과 Drabman(1981)은 유아로 하여금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행동을 익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훈련결과로 유아들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 3. 부모 안전교육

Bronfenbrenner(1979)에 의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는 크게 미시체계, 중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네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환경은 가정으로 가정은 인간의 발달이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미시체계이며 아동이 가장 먼저, 가장 긴밀하게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이양희, 2001).

이와 같이 1차적이며 직접적인 가정환경은 아동발달과 교육에 있어서 그 어떤 환경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정에서의 경험은 이후 확대된 사회에서의 사회적 행동의 기초를 확립하는 환경이 된다.

부모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자녀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 오늘날과 같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

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부모는 안전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예방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곧 자녀는 생활의 기본적인 장이 가정이고, 거기에서부터 생활의 장이 확대되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능력의 육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책임자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발달특성상 활동량이 많지 않은 영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내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며 끊임없이 보호·감독하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모의 보호에 의지하던 영아기를 지나 외부에서 또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유아기는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안전지식과 행동을 교육을 통해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아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과반수가 가정이나 가정과 관련된 상황이고 1차적인 보호의 책임이 있는 부모들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대한 심각성마저 매우 낮아 더 큰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실천을 생활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안전인식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형성되며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동안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자아의 확립, 부모 및 또래들의 생활관계 등을 거쳐서 규범이 내면화할 때 형성된다(Conger, 1977).

따라서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의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는 모방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승인되는 행동을 배우고 적응하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안전한 행위는 자녀에게 안전한 행동 및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시킬 수 있으며 좋은 학습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내 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모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자로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둘째, 환경구성자로서 자녀에게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해주어야 한다. 셋째, 교육자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안전 지식 및 태도, 행동을 가르쳐야 하며, 넷째, 역할모델자로서 일상생활을 통해 자녀에게 안전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자녀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로서 역할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며 지역사회 및 국가에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아동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있다(윤선화, 2001).

결국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동이 접하는 환경 내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자녀의 안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자녀에게 철저히 자연스럽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이양희, 2001). 그러기 위해서 정부 및 관련단체에서는 부모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의 안전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모는 유아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예방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곧 유아는 생활의 기본적인 장이 가정이고, 거기에서부터 생활의 장이 확대되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능력의 육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책임자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베란다, 창문, 침대 등에서의 추락사고, 욕실에서의 미끄러짐, 약물에 의한 중독, 찔리거나 베임, 화상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따라서 부모는 유아의 사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위험하지 않게 조성하는 동시에, 유아가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아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과반수가 가정이나 가정과 관련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정내 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제 3 장 우리나라 아동안전 현황

WHO에서 정의하는 사고는 “알아볼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우발적인 사건”이다.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원인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과거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그 비율은 매우 높고, 어린이 안전사고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안전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안전사고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제 1 절 우리나라 아동안전 정책

#### 1. 안전관련 법적 근거

현행 아동 및 어린이 안전만을 다루는 법령은 없으며 여러 법규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개별법이 어린이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조항이 구체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처별로 운용하고 있는 개별법이 명확한 소관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또한 개별법마다 안전 관련내용이 상이하고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혼선 등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개별법규로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소방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건축법, 교통안전법, 소비자보호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여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별 법령에서 품목별 또는 분야별로 규정하



고 있다. 이들 중 아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법률만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조는 제2항에서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에서는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후에는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 3-1〉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기준

구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교육	재난대비 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 월1회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2. 교통관련 법규준수 정신 3. 안전장구 착용의 생활화 4. 기타 교통안전관련 내용	1. 약물의 종류, 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2. 법적처벌 기준 3.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	1.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2.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 요령
교육 방법	1. 전문가(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4. 일상생활에서 반복지도	1.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 시청각 교육 3. 현장방문·학습	1.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교육 3. 사고사례 분석

또한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표 4-1 참조). 한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 시설의 입지조건인 시설의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보육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안전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 다. 학교보건법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진흥법에는 안전을 언급한 법규가 없다<sup>4)</sup>. 유치원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보건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지난 199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동법은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했는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 유치원 안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면에서는 1999년 교육부의 ‘유치원교육 운영계획’에서 신규 설립 인가시 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 건물의 용도, 학교보건법 및 안전

4) 2004년 1월에 제정된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5조에 설립 기준 조항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므로 아직 구체적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설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인가하고, 기존의 3층 이상을 사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아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3층 이상은 가급적 신규인가를 억제한다는 행정관리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위험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통원버스 운행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소방시설 설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화재 예방을 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라.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등 어린이보호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에서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및 비슷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 48조의 6은 2001년 개정하여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였다.

#### 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물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산업자원부가 관리하고 있고 기술표준원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품질경영및공산

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안전검정대상 공산품,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구분하고 있다.<sup>5)</sup>

〈표 3-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구분	품목
안전검정 대상	유해물질함유 학용품(연필류, 샤프연필류, 지우개류, 파스텔류, 수채그림물감류, 분필류, 마킹펜류, 연필깎이류, 팔레트류, 필통류, 책받침류, 색종이류, 공책류, 스케치북류에 한한다), 롤러스케이트(구두가 장착된 부분의 최대길이가 18cm 미만인 것으로 바퀴의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비작동완구(유아용딸랑이, 뽀뽀이, 치아용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는 제외한다), 식탁용품·주방용품(세라믹 제품(법랑제품은 제외), 내열유리제품, 유리제 식기류에 한한다), 간이빨래걸이, 가죽제품(표면의 가죽면적이 60% 이상인 의류제품류, 벨트류, 가방류, 소파류, 지갑류, 신발류에 한한다), 안경테(산업용과 같은 특수한 용도의 것은 제외한다), 선글라스, 우산·양산, 보안경(TV용), 스키용구(알파인용 스키, 스키화, 스키바인딩에 한하며, 이중에서도 경기용 및 특수용도의 것은 제외한다),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진공보냉병, 아이스용 자야, 냉장상자에 한한다)
안전검사 대상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신발창에 바퀴를 삽입하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아용 딸랑이, 뽀뽀이,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 물놀이기구, 공기주입보우트, 승차용 안전모(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 안전모(자전거용, 등산용, 야구용, 어린이용, 롤리스포츠용, 스키용에 한한다), 가스라이터, 젓병·젓꼭지(노리개 젓꼭지를 포함한다), 비비단충, 키펀드(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륜자전거(일반용, 유아용, 산악용, 유사산악용에 한하며,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헬스기구, 보온용기(진공보온병, 보온·보냉물통, 보온도시락에 한한다),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미끄럼방지 타일(욕실 바닥용에 한한다),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 및 파스 (비전문가용에 한한다),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레이저 지시봉, 레이저 어린이용품에 한한다), 롤리스포츠용 보호장구(무릎·손목·팔꿈치 보호대에 한한다)

2004년 7월부터 시행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바퀴운동화, 인라

5)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출고(통관)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산품이고,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은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시 안전검정을 실시하는 공산품이며,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은 제조·판매업자에게 표시기준의 준수를 권고하는 공산품임.

인롤러스케이트(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및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아울러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쉽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의 식별이 곤란한 공산품을 품질표시 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표 4-2>와 같다.

#### 바.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제정,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등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함정보보고제도, 자발적 리콜제도, 리콜권고제도, 긴급리콜제도 등 리콜조항을 두고 있다.

#### 사. 기타

이외에도 「학교보건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에 설치되는 놀이터는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건설 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놀이터는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원시설의 안전성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

## 2. 안전 관련 기관

### 가. 행정기관

아동안전은 안전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만큼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지원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식약청 등 많은 부처와 많은 부처의 정책과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가정내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 교육자료 개발 목적에 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일부 부처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 1) 국무조정실(안전관리기획단)

아동안전과 관련한 총괄 정부기구로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1999년 6월 씨랜드 참사,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 해소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설치하여 2000년 9월 안전관리종합대책(7개분야 100대 과제)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동 기획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정식기구로 안전관리개선 기획단이 설치되어 안전관리 종합대책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2000. 9. 27. 설치된 Task—force 형태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건교부, 경찰청 등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18명), 교통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전문위원 8명)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단」은 국가의 각종 안전관리 기능이 33개 개별법률에 의거 1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관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단」에서는 정부 여러 부처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를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21세기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우리의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통안전에 역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개발, 조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감과 아울러 인위재난, 자연재해, 안전문화 운동 등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조정·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는 2001년 9월 ‘어린이 보호 육성 5개년 계획’ 기본안을 마련하였는데, 동 계획안에는 그 동안의 교통안전 중심에서 벗어나 어린이용품 및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강화와 학교급식 개선 등 포괄적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외 정부에서는 범국민적 안전의식 활성화 방안으로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안전문화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

하여, 가정·학교·교통·공공시설·산업현장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문화관광부, 2003),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교통안전기획단을 운영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등 전 국민들이 안전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관장하고 있고, 또한 국무총리실이 미련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의 주무 부서로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용품이나 놀이시설의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정하는 등 어린이 안전조항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어린이 보호·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어린이 안전보호육성 종합계획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안전교육에 관해서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교육인적지원부

교육인적지원부에서는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고, 아동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 연수시 아동안전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안전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배부하고 있다. 또한 등하교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별 1개소씩 시범구역 지정하여 개선한

후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에 체험교육 및 시범학교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 및 부모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교사연수시 및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교사교육을 강화하였다.

#### 4)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물품안전에 관한 법률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sup>6)</sup> 주무 부처로 물품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법을 개정(2002.7)하여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작동완구만 사전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비작동 완구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전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된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정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하였다.

#### 5)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는 주택 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03년부터 주택난간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여 난간의 높이를 110cm에서 120cm로 강화하고, 난간 간살의 간격을 15cm에서 10cm로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조정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에 납(Pb) 성분이 적은 저독성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과 각 세대 내의 시설물 등의 안전한 사용법과 유의할 사항(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공사) 등 아동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였다.

#### 6)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로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

6) 종전의 품질경영촉진법이 개정된 것임.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시장감시 및 행정처벌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집단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식중독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한 HACCP제도를 활성화, 업계 자율적인 위생관리 규범을 설정토록 하여 안전식품 제조·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2001년 11월 어린이 약물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품목을 지정하여 5세 이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마개 위나 옆을 눌러서 여는 방식의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토록 정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7) 서울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5월 별도의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민간단체와 협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 등 시민단체 지원, 교통안전시설 개선, 어린이 안전신문(내친구 서울) 발간, 어린이 안전지킴이 발대, 어린이 안전공원 개원, 안전교육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진적으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8) 기타

최근 수원시에서는 “안전도시 수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1차 아시아 안전도시 학회를 구성하고 안전한 수원 만들기를 위한 프로그램(노인안전, 어린이 안전, 자살예방, 성인안전, 교통안전 등)을 제작하여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청소년 비전 2002 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과 청소년단체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적십자 안전캠프, 청소년 성폭력 지킴 등 어린이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통사고), 행정자치부(화재사고), 한국산업안

전공단(안전문화), 한국어린이보호재단(교통안전) 등에서 분야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나. 민간 단체

민간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세이프 키즈 코리아(Safe Kids Korea), 한국어린이안전재단(씨랜드 천사의 손), 경실련(어린이 환경위원회), 한국어린이 육영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등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어린이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 키즈 코리아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활동하는 비영리 국제단체의 한국 지부이다. 이는 1988년에 창립되어 현재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외 13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12월에 지부가 설립되었고, 현재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가정안전, 물놀이 안전, 학교 안전, 스포츠 안전 등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과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달 1회씩 포럼을 열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교눈높이는 세이프 키즈 코리아의 창립 후원사로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꼬마안전짱, 꾸러기안전일기, 어린이 안전학교 등에서 어린이 안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제 2 절 아동 안전사고 사상 실태

### 1. 안전사고 발생 실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전국통계는 없고 부분적으로 통계가 생산되고 있는 바, 2000~2002년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정보 중 병원으로부터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피해정보 통계 및 조사 자료,

2003년 서울시 소방방배본부 자료 및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사고장소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안전사고 전체 4,752건 중 56.1%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23.9%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 ‘도로’ 5.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장소를 연령별로 보면 1~5세 어린이의 경우 ‘가정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66.5%로 월등히 높았으며, 반면에 6~14세의 어린이의 경우 ‘가정내’ 사고는 31.0%인 반면에 공원, 놀이시설, 운동 및 연가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가 39.3%, ‘도로’ 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5세 이하 어린이의 활동공간이 주로 가정이고, 6~14세 어린이의 경우 집 안뿐만 아니라 공원, 놀이시설, 도로 등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3〉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장소

(단위: %, 명)

구분	가정내	공공시설 및 서비스	도로	기타	전체	(수)
전체	56.1	23.9	5.9	14.1	100.0	(4,752)
1~5세	66.5	17.7	3.8	12.0	100.0	(3,369)
6~14세	31.0	39.3	11.4	18.5	100.0	(1,382)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2003.

서울시 방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119가 출동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4,637건이었는데, 이 중 58%인 2,694건이 가정내 사고로 보고하였다. 이 중 사망자 수도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정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62.8%가 자녀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응답한 사고 장

소를 보면 방이 42.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거실·마루 19.1%, 화장실·목욕탕 14.3%의 순이다.

〈표 3-4〉 가정내 안전사고 영역

(단위: 건, %)

구분	수	비율
주방·부엌	95	12.5
방	320	42.1
거실·마루	145	19.1
마당·복도	20	2.0
계단	23	3.0
화장실·목욕탕	109	14.3
베란다·옥상	18	2.3
현관	28	3.7
엘리베이터	3	0.4
계	761	100.0

자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URL. <http://www.safekids.or.kr> 재인용 및 재가공, 2003.

#### 나. 사고관련 물품 및 시설물

어린이 안전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물품 및 시설물의 비율은 물품 69.0%, 시설물 30.9%로, 물품에 의한 사고가 시설물에 의한 사고보다 2.2배 정도 더 발생하고 있다.

물품이 사고원인인 경우 1~5세 어린이는 주로 집안의 가구가 주원인인데, 그 중에서도 ‘침대’가 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책상’, ‘의자’ 등의 순이다. 이는 방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여성단체협의회 조사자료와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6~14세의 어린이의 경우 가장 많이 다치는 물품은 ‘키보드’로 전체사고의 10.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9.4%, ‘비비탄총’과 ‘자전거’가 각각 7.5%의 순이다(표 3-5 참조).

〈표 3-5〉 연령별 사고 상위 물품

순위	1~5세(2,375건)			6~14세(903건)		
	품명	건수	비율(%)	품명	건수	비율(%)
①	침대	163	6.9	키보드	92	10.2
②	책상	94	4.0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85	9.4
③	의자	91	3.8	비비탄총	68	7.5
④	자전거	63	2.7	자전거	68	7.5
⑤	상	51	2.1	트레이닝 기구	25	2.8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2003.

〈표 3-6〉 연령별 사고 상위 시설물

순위	1~5세(993건)			6~14세(480건)		
	시설	건수	비율(%)	시설	건수	비율(%)
①	현관문/방문	159	16.0	현관문/방문	59	12.3
②	계 단	158	15.9	미끄럼틀	36	7.5
③	욕 실	73	7.4	레저시설	29	6.0
④	미끄럼틀	66	6.6	학교시설	27	5.6
⑤	공중목욕탕	58	5.8	그 네	25	5.2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2003.

시설물은 1~5세 어린이가 시설물에 의하여 다치는 사고는 문틈에 손가락이 끼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16.0%로 가장 많았고, 계단에서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15.9% 등으로 집 주변의 시설물에 의하여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14세 어린이의 경우는 ‘현관문·방문’ 12.3%, ‘미끄럼틀’ 7.5% 등이며 그밖에 스키장 등의 레저시설, 학교시설물에 의하여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 다. 사고 유형

한국소비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안전사고 중 추락 및 미끄러짐이 32.5%이고 충돌, 충격 25.5%, 베임사고 11.9% 순으로 이들 사고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 압쇄(눌림/끼임)사고 6.8%, 전기고온에 의한 화상

4.9% 등이며, 이들 사고는 발생빈도가 다소 적지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다(표 3-5 참조). 상해부위는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전체의 29.0%로 가장 많았고, ‘머리’ 9.8%, ‘입’ 7.9%, ‘눈’ 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얼굴, 입, 눈, 귀, 치아 등을 모두 머리에 포함시킬 경우 머리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전체의 60.9%로 나타나 심각한 위해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표 3-7〉 사고유형과 사고부위

사고유형		사고부위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추락/미끄러짐	1,529( 32.2)	얼굴	1,376( 29.0)
충돌/충격	1,214( 25.5)	머리	466( 9.8)
베임	567( 11.9)	입	377( 7.9)
압박	324( 6.8)	눈	311( 6.5)
이물질흡입	262( 5.5)	손, 손가락	525( 11.0)
화상(전기, 고온)	231( 4.9)	팔	253( 5.3)
오용, 남용	149( 3.1)	코	150( 3.2)
기타	378( 8.0)	내부기관	238( 5.0)
불명	98( 2.1)	다리	154( 3.2)
		기타	822( 17.3)
		불명	80( 1.7)
합계	4,752(100.0)	합계	4,752(100.0)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2003.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조사한 가정내 안전사고는 전체 발생건수 중 충돌이 2.33%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낙상·추락, 미끄러짐, 끼임, 베임, 이물질 흡입의 순으로 모두 10~1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표 3-8 참조).

〈표 3-8〉 가정내 안전사고 유형

(단위: 건, %)

구분	수	비율
낙상·추락	241	15.4
미끄러짐	229	14.6
충돌	366	23.3
베임	191	12.2
끼임	204	13.0
이물질 흡입	174	11.1
중독	16	1.0
화상	110	7.0
익사/익수	23	1.5
감전	16	1.0
계	1,570	100.0

자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URL. <http://www.safekids.or.kr> 재인용 및 재가공, 2003.

## 2. 아동 안전사고 사망 실태

유니세프(2001) 조사에 의하면 OECD 2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 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26명으로 최고 낮은 스웨덴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25.9명에서 14.8명으로 약 11.1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 안전사고비율은 높다. 2002년 현재 통계를 보면 아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표 3-9>와 같이 0세아 129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5.7명이고, 1~4세아 20.5명, 5~9세아 12.6명, 10~14세 7.3명, 15~19세아 22.2명이다. 사고유형별로는 운수사고의 비중이 매우 커서 인구 10만명당 1~4세아 9.7명, 5~9세아 6.8명, 10~14세아 2.9명, 15~19세 11.8명이 된다. 다음은 익수사고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1~4세아 2.1명, 5~9세아 2.6명, 10~14세아 1.6명, 15~19세 1.4명이다.

사고사가 전체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세아 5.1%, 1~4세아 47.8%, 5~9세아 55.6%, 10~14세아 42.2%, 15~19세아 61.5%이다.

〈표 3-9〉 각종 사고사의 사망자수 및 사망률(2002년)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구분	계	운수 사고	자살	추락 사고	익수 사고	피살	화재 사고	중독 사고	기 타 사고사	(전체 사망 대비율)	
0세	수 (사망률)	129 (25.7)	14 (2.8)	-	4 (0.8)	2 (0.4)	9 (1.8)	4 (0.8)	1 (0.2)	95 (18.9)	2,545 (5.1)
1~4세	수 (사망률)	516 (20.5)	245 (9.7)	-	91 (3.6)	52 (2.1)	35 (1.4)	21 (0.8)	2 (0.1)	70 (2.8)	1,080 (47.8)
5~9세	수 (사망률)	446 (12.6)	240 (6.8)	-	27 (0.8)	91 (2.6)	28 (0.8)	23 (0.7)	2 (0.1)	35 (1.0)	802 (55.6)
10~14세	수 (사망률)	239 (7.3)	95 (2.9)	31 (0.9)	12 (0.4)	53 (1.6)	17 (0.5)	6 (0.2)	1 (0.0)	24 (0.7)	566 (42.2)
15~19세	수 (사망률)	756 (22.2)	401 (11.8)	203 (6.0)	13 (0.4)	47 (1.4)	32 (0.9)	7 (0.2)	5 (0.1)	48 (1.4)	1229 (61.5)
전체 인구	수 (사망률)	28,834 (59.9)	9,201 (19.1)	8,631 (19.1)	3,145 (6.5)	948 (2.0)	806 (1.7)	556 (1.2)	293 (0.6)	5,254 (10.9)	246,515 (11.7)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3.

〈표 3-10〉 연령층별 자동차 사고 사망자 추세

(단위: 명, %)

연령별	1993년		2001		2002		연평균 증감률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계	10,402	100.0	8,097	100.0	7,090	100.0	△4.2
14세 이하	998	9.6	489	6.0	461	6.5	△8.2
15~20세	650	6.2	547	6.8	390	5.5	△5.5
21~30세	1,924	18.5	1,165	14.4	988	13.9	△7.1
31~40세	2,017	19.4	1,371	16.9	1,081	15.2	△6.7
41~50세	1,470	14.1	1,305	16.1	1,170	16.5	△2.5
51~60세	1,424	13.7	1,154	14.3	962	13.6	△4.3
61세 이상	1,851	17.8	2,043	25.2	2,025	28.6	1.0
불명	68	0.7	23	0.3	13	0.2	△16.8

자료: 경찰청,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2003.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1993년 이후 2002년까지 연평균 4.2%씩 감소하고 모든 연령층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수는 연평균 8.2%씩 감소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사망자수 구성



비중에서도 14세 이하 어린이는 1993년 9.6%에서 2002년 6.5%로 줄어들었다. 2002년에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348건이 발생하여 461명이 사망하고 27,141명이 부상당하였다(표 3-10 참조).

〈표 3-11〉 사고시 상태별 어린이 자동차 사고 현황(2002년)

(단위: 명, %)

구 분	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사망자 (구성비)	461 (100.0)	91 (19.7)	6 (1.3)	25 (5.4)	337 (73.1)	2 (0.4)
부상자 (구성비)	27,141 (100.0)	10,687 (39.4)	213 (0.8)	1,292 (4.8)	14,605 (53.8)	344 (1.3)

자료: 경찰청,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2003.

〈표 3-12〉 중학생 이하 어린이 자동차 사고 현황(2002년)

(단위: 건, 명, %)

구 분	계	취학전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발생건수 (구성비)	20,262 (100.0)	7,835 (38.7)	9,155 (45.2)	3,272 (16.1)
사망자 (구성비)	391 (100.0)	210 (53.7)	141 (36.1)	40 (10.2)
부상자 (구성비)	23,324 (100.0)	9,305 (39.9)	10,429 (44.7)	3,590 (15.4)

자료: 경찰청,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2003.

교통사고시 어린이 활동상황을 보면, 보행중 사망사고가 전체의 73.1%로 가장 많으며, 중학생 이하 어린이 사망자(391명) 중 취학전 어린이(53.7%)와 초등학생(36.1%) 사고 사망자수가 전체의 90%에 이르고 있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표 3-11, 표 3-12 참조).<sup>7)</sup>

7) 어린이 자동차 사고는 월별로는 4~5월과 9월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간대별로는 학교 및 놀이 시간대인 12시부터 20시 사이에 전체 사망사고의 65.1%가 발생하여 어린이 활동이 많은 시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 가. 영유아 안전사고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3년간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중 위해원인별, 위해 내용별 및 위해장소별로 분석하여 발표한 영유아 안전사고 내용은 다음 <표 3-13>, <표 3-14>, <표 3-15>와 같다

<표 3-13> 위해내용별 사례

구분	나이	성별	사 례
골절	5	남자	2층 높이의 주택창문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뺨/염좌/긴장	2	남자	침대에서 추락해 다리 뺨
탈구	1	여자	집에서 나무 장난감에 부딪혀 치아 탈구
절단	13	남자	종이 자르다가 왼쪽 엄지와 검지 끝부분이 커터칼에 잘림
찰과상	3	여자	옆집 개한테 물려 얼굴, 다리 찰과상
타박상/좌상/부종	7	남자	탑블레이드 팽이에 눈 맞아 타박상
베인 상처/열상	6	여자	공작용 칼로 장난치다 오른쪽 팔목에 열상
찢린 상처	4	남자	장난감 주전자에 눈이 찢림
화상	3	여자	숯불구이 석쇠에 얼굴을 닿아 눈에 화상을 입음
중독	3	여자	엄마가 자리 비운 사이 약품 과다 복용
질식	2	남자	500원짜리 동전을 삼켜 기도에 걸림
내부기관 손상	2	남자	형과 놀다가 락스를 마셔 속이 따갑다고 함
뇌진탕	1	여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 증상
치아손상	0	남자	유모차 탄 채 계단에서 굴러 치아손상
감전	4	남자	집에서 벗겨진 전선을 손으로 잡아 화상
박리/적출	5	여자	러닝머신에 손 끼여 손바닥 벗겨짐
신경/척수 손상	1	남자	소아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
피부손상	2	여자	비매품 샘플분유 복용후 두드러기 발생
이물질	1	여자	분유에서 쇳가루 검출
압박손상	8	남자	자전거바퀴에 오른발 뒷꿈치 압박손상
안구 및 시력손상	1	여자	음료수 빨대에 오른쪽 눈을 찔려 각막 손상 입음
혈관손상/출혈/혈종	4	여자	장난감 뽕망치로 놀이 중 우측 안구를 맞아 출혈
기타	2	남자	비누방울 놀이기구의 액을 마시고 구토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2003.

〈표 3-14〉 위해원인별 사례

구분	나이	성별	사 례
추락/넘어짐 /미끄러짐	4	여자	의자에서 놀다가 떨어져 팔 골절
충돌/충격	7	여자	냉장고 위의 오디오가 떨어져 부딪혀 미간에 열상
베임/찢어짐	6	여자	저금통을 칼로 자르다가 손등에 열상 입음
이물질흡입 및 섭취	1	남자	바늘 삼키고 식도 찢림, 소화기장해 및 내장손상
찢림	7	여자	머리핀에 찢려 오른쪽 각막에 손상 입음
압제(눌림/끼임)	2	남자	러닝머신에 발이 끼어 발에 열상 발생함
폭발	8	남자	문구점에서 구입한 폭약이 터져 2도 화상
오용/남용	14	남자	모기몰린 상처에 식초와 소주를 부은 뒤 화상
부패/변질	12	남자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비스킷 먹고 설사, 복통
화학품 영향	2	남자	순간접착제 가지고 놀다가 양눈에 들어가 통증, 충혈
고온 영향	4	여자	뜨거운 식용유에 엉덩이, 허벅지 2도 화상
전기/ 방사능 영향	4	남자	전기콘센트에 젓가락 집어넣어 감전으로 손가락 화상
과도한 동작	6	여자	AB슬라이드 사용 중 땅바닥에 넘어져 얼굴 타박상
기타	4	남자	전자렌지 삶은 계란을 포크로 찌르는 순간 터져 얼굴 화상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2003.

〈표 3-15〉 위해장소별 사례

구분	나이	성별	사 례
거실	4	남자	나무젓가락 물고 놀다가 넘어져 입천정 찢림
부엌	8	여자	전원 연결된 믹서기에 손가락을 넣어 손가락 3cm 심부 열상
방/침실	4	남자	햄토리 장난감이 코에 들어감
화장실	13	남자	화장실 거울이 떨어지며 부딪혀 어깨 열상
욕실	13	남자	깨진 욕실 타일에 손 열상
복도/마루	8	여자	그네 타다가 넘어져 앞니 손상
현관	2	여자	파손된 온도계의 수은 흡입 및 유리 흡입 우려
계단	2	남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어깨뼈 골절상
마당	11	여자	집앞에서 롤러슈즈 신고 놀다가 넘어져 손가락 골절
기타 가정	1	여자	할머니가 하루에 한알씩 먹는 고혈압약 3알을 먹음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2003.

나. 7~10세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사고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소방방재119와 공영방송인 KBS TV에서 발표·보도한 최근 3년 동안의 7~10세 어린이의 안전사고 사례를 사고유형별로 제시하면(윤용희, 2003) <표 3-16>과 같다.

<표 3-16> 7~10세 아동의 안전사고 사례

사고유형	대상	대표적 사고사례
1 찢림· 베임사고	가위, 체온계, 칼 등	① 9세된 남아가 동생과 함께 가위를 가지고 놀다 왼쪽 손가락을 가위에 베어 열상을 입음. ② 6세된 여아가 체온계에 오른쪽 눈동자를 찢려 안구와 눈꺼풀에 열상을 입었다. ③ 8세된 여아가 부엌칼을 가지고 놀다 손가락을 베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2 미끄러짐 사고	욕실, 수영장, 미끄럼틀	① 서울에 거주하는 어린이 박모 양(8세)은 가정의 욕실에서 목욕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변기에 부딪쳐 앞니가 부러지고 잇몸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② 어린이 양모 양(5세)은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3 놀이사고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장난감총 (비비탄환), 그네, 미끄럼틀 등	① 만6세 남아가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빠른 속력으로 내려가는 도중 앞 자동차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급정거 하려고 했으나 멈추지 못하고 문에 부딪혀 턱이 찢어짐. ② 초등학교 4학년인 손영진 군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달리다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뼈가 심하게 부러짐. ③ 초등학교 3학년 남 모군은 장난감총을 가지고 놀다 친구가 쏜 비비탄환이 직격으로 날아와 실명할 뻔했음. ④ 초등학교 4학년인 김호성 군은 장난감 팽이를 갖고 놀다 눈을 다쳤음. ⑤ 남자 어린이(12세)가 그네를 타다가 철봉 위로 떨어져 요도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또 다른 남자 어린이(8세)는 미끄럼틀에서 넘어져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⑥ 할머니택에 설을 쇠러 왔던 어린이 3명이 양어장에서 숨졌다. 사촌지간인 아이들은 얼음 위에서 팽이치기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표 3-16〉 계속

사고유형	대상	대표적 사고사례
4 화상사고	권총탄양용 화약	① 초등학교 3년생이 학교 앞 문방구점에서 산 권총 탄약용 화약이 바지주머니에서 터져 전치 3주의 중화상을 입었다.
5 화재사고	화재	① 충남 천안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밤 11시경에 화재가 발생, 축구부 학생 24명 중 8명이 연기에 질식되어 숨졌다.
6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사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① 7살 박모군이 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발판과 난간 사이에 신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손으로 신발을 빼내려다 손가락이 잘렸다. ② 초등학교 6명이 승강기에 탑승하던중 문이 닫히기 직전 올라탄 이군의 발이 승강기 안쪽 문에 끼었다. 그 상태로 승강기가 움직이자 이 군은 승강기 틈사이로 허리까지 떨어 들어갔고 6층을 끌려 올라갔다.
7 교통사고	골목길, 횡단보도 등	① 인천시 십정동에서 아홉 살 여아가 급하게 뛰어서 횡단 중 과속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 ② 창원시 대원동에서 공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찾길로 굴러가는 공을 줍기 위해 찾길로 뛰어들다 차와 부딪혀 사망하였다. ③ 경부고속도로 오산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띠를 착용한 부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남매는 튕겨나가 모두 사망했다.
8 추락사고	창문, 학교건물 추락	① 초등학교 3학년생이 아파트 창문 부근 책상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다 방충망과 함께 창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② 어린이 2명이 피아노와 책상을 던고 올라갔다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다 ③ 초등학교 3학년생이 학교건물 3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9 물놀이 사고	물에 빠졌을 때	① 물놀이를 하던 10살 여아가 갑자기 급류에 휩쓸렸다. 여아가 허우적거리자 아버지와 오빠가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으나 빠른 물살 때문에 3명 모두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이를 구하려고 옆에 서있던 중학생 2명도 물에 뛰어들었으나 이 가운데 한 명도 함께 숨졌다.
10 애완동물 안전	개	① 경북 안동 집 마당에서 혼자 놀던 6살난 남자 어린이가 집마당 한 귀퉁이에 기르던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 사망하였다
11 성폭행 사고	낯선 사람 신체접촉	① 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여자 어린이 한 명이 몇 달 동안 같은 학교 6학년 남자어린이들에게 성폭행 당함. 비어 있는 집이나 공원 화장실 등에서 땅을 보는 가운데 한 명씩 들어와 옷을 벗기고 성기접촉을 했음.

자료: 윤윤희,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의 생활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003.

### 제 3 절 시사점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안전사고의 현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상생활 속에 늘 안전사고의 위함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부모나 아동의 부주의로 인하여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와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평소에 안전의식을 가지고 주의하고, 또한 아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원인 대부분이 가정에서 늘 이용하는 물품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늘 이러한 물품의 배치나 보관에 유의하도록 부모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또한 아동이 가지고 노는 물품에 대해서도 위험한 장난감을 가능하면 가지고 놀지 말도록 교육하고, 동시에 이러한 물건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 이외에 골목길, 놀이, 동물, 성범죄 등 아동의 생활반경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가정내 안전과 더불어 부모의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 제 4 장 외국의 안전 관련 정책

### 제 1 절 외국의 안전 관련 정책

#### 1. 일본의 안전 관련 정책

##### 가. 안전관련 제도 개요

일본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위해방지 기준정비와 위해방지 확보 시책강구를 규정하고 이외 특정제품별 소관법규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기본법에 위해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조례로 운영한다.

일반 소비생활용품 중 구조, 재료 등 물리적 성질의 결함에 의한 위해는 소비생활제품안전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비생활제품안전법은 국가에 의한 위험한 제품의 규제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향상에 관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의 추진 등을 통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동 법에는 안전마크제도 운영과 공업적 과정을 거친 제품으로 독자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 제공될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외 가정용품에 함유된 물질 가운데 인체에 위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 규제는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후생성), 섬유제품·합성수지·가공품·전기기계기구 등은 제품의 품질표시방법에 관한 법률인 가정용품품질표시법(통상산업성),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 전기용품단속법(통상산업성),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세정제 등은 식품위생법(후생성) 그리고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 등은 약사법(후생성)에서 다루고 있다.

안전마크는 국가(경제산업성)에서 강제 인증하는 ST마크와 민간단체인 제품안전협회가 인증하는 SG마크(임의제도), 완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ST마크가 있다. 소비생활제품안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SP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는 품목은 영유아 침대, 포터블레이저응용장치, 등산용 로프, 가정용 압력밥솥, 승차용 헬멧 등이며, 제품안전협회의 안전기준에 의거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SG마크에 적용되는 품목은 영유아제품 21종, 가구·가정용 제품 30종, 스포츠·레저 제품 56종, 복지용구 제품 7종, 기타 자전거 등 13종 등 5개 분야 127개 품목이고, 일본완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협회기준에 의거 완구에 대하여 ST마크를 운영(505개사 가입)하고 있다.

#### 나. 안전교육

일본<sup>8)</sup>은 학교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학습과 안전생활지도의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안전학습은 각 교과목 수업중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로 체육수업시간중에 소학교에서는 부상방지, 중학교에서는 상해방지, 고등학교에서는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둘째, 안전생활지도는 각 학년 당 10~20시간씩 학교행사와 학급활동, 특별활동, 학생 서클 활동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안전에 대한 실천적 태도와 능력을 자발적이고 자치적으로 증진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부성과 각종단체에서는 교사들의 원활한 안전교육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교재개발, 교육시설 설치, 교사 연수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해 안전교육이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은 1972년 중앙 교통안전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입각하여<sup>9)</sup> 교통안전 교육보급협회에서 개발한 「교통안전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여 유치원과 소학교에 제공하고 있고, 유아의 어머니에

8) 일본은 폭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1950년대 말 공장의 오·폐수 문제로 미나마타 환경공해 병까지 발병하면서 안전이 사회 공동의 해결과제로 인식되었음.

9) 현재는 2001년 3월 중앙 교통안전 대책회의에서는 향후 5개년간의 제7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성장 단계별 적절한 안전교육과 관련기관의 제휴를 통한 현장교육의 보급, 안전의식 고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게 ‘교통안전 독본’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지침에 유아교육은 보행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안전한 보행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자동차 및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응급대처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안전 독본은 유아의 특성과 유아교통안전과 가정의 역할, 탈것의 안전한 이용, 안전한 등하원, 유아교통사고시의 준수사항, 보행자로서 알아야 할 간단한 교통표지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부성은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에 의거 각 교육기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 권장사항은 타국의 법률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이바라기현에서 영국 터프티 클럽을 모방하여 1972년 히마와리클럽을 조직하여 유아 교통안전 클럽 집합 훈련과 활동 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하타치나카시에서는 행정당국인 시 차원의 시민생활부에 1988년 2명의 교통안전교육지도원을 두고 발족하여 1998년에는 6명으로 증원하여 각종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교통안전 민간단체의 지도 및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통지도원이나 민간교통지도원이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실제 도로에 나가서 횡단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에는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유아 교통안전교육 클럽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3~5세까지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다. 안전문화의 확산

1964년 각료회의에서 국민안전의 날(7월 1일)을 제정하고 총리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전국안전협의를 창설하여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정립되어 있고, 민간이 안전문화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하여 소관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은 노동성, 교통안전은 운수성, 화재예방은 소방성, 학교안전은 문부성 등 각 부처가 소관업무 및 분야별로 안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영국의 안전 관련 정책

### 가. 안전 관련 제도

영국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소비자 안전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모든 소비자용 제품은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반 안전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곡물, 물, 식물, 사료·비료, 가스, 항공기, 자동차, 처방약, 담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행정규칙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개별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행정규칙은 최저한의 안전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안전규제는 안전기준·규격제정과 기준준수여부의 검사나 조사에도 관여하는 영국규격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e)가 작성하는 BS규격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마크제도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안전마크(카이트마크, 안전마크)는 무역산업성내 품질보증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영국전기승인위원회(BEAB)가 주관하는 BEAB마크는 가정용 기기를 인증하는 임의제도이다.

어린이 안전법(1989)은 유아들을 위한 가족 지원과 일상 보살핌과 교육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 서비스 부서, 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의 물리적 인적 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작업장 건강과 안전법(1974) 및 건강 및 안전관리 규칙(1992)은 사고 또는 상해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작업절차 및 안전에 대한 법으로,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문서화된 건강 및 안전정책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법(1990) 및 식품안전규칙(1995)은 식품 오염 및 부적절한 표시, 정확하지 않은 광고로 인해 오남용을 방지한다.

어린이 사고예방 재단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수집과 위해정보 및 교육 수집, 아동 사고예방대책과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소비자협의회(NCC)는 1975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중앙단체로서 무역산업성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익사업, 기업, 산업계에서의 적절한 안전기준 제정 등 정책결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 나. 안전교육<sup>10)</sup>

### 1) 학교 안전교육

1992년 보건성장관은 “국가의 건강”(The Health of the Nation)백서에서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을 33%로 감소시킨다는 의도를 발표하였다. 국가의 건강에서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많은 사회 단체들 사이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한 도시, 건강한 학교”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의해 건강교육의 일부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와 건강교육국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1988년에 제정된 교육개혁법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학습내용 및 성취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과정이 균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NCC)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초교육과정 외에 환경, 건강, 시민의식과 같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개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 2) 지역사회 안전교육

민간단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지원 하에 교통안전교육 연구

10) 1990년 영국정부는 5~15세 사이의 아동 중 15명 중 1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는다는 경찰의 사고통계기록을 바탕으로 아동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상해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동의하여 “a Road Safety Code of Good Practice”를 제작하였고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1961년 민간기구인 왕실사고예방협회(RoSPA)에서 연령별 학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정과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특히 동 협회의 Tufty Club에서 취학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3~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올바르게 정확한 교통행동을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ufty Club은 전국에 여러 조직망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단순히 지식교육보다는 습관화 및 행동화 교육을 지향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Tufty Club책자를 통해 그림색칠과 오락놀이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1995년에는 정부차원에서 트래픽 클럽(traffic club)을 조직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보급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상주학교연락관, 경찰도로안전관, 지역순찰관으로 분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도로안전관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통안전 실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직접 지역의 도로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도로횡단법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모델이 그린크로스코드(Green Cross Code)이다.

지방정부 중 스코틀랜드에서는 1985년 교통안전캠페인(SRSC: Scottish Road Safety Campaign)을 조직하여 캠페인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향상과 교수매체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역 교통안전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3. 미국의 안전 관련 제도

#### 가. 안전 정책

안전업무는 국가 보건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어린이 안전보호사업은 보건인적서비스부 산하의 국립상해예방조절센터 및

동 센터가 주도적으로 만든 다양한 분야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인 National Safe Kids에서 추진하고 있다.

장난감, 놀이용품, 가구 등 소비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관장하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제품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반법인 소비자제품안전법(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이외에 연방위험물법(FHSA), 가연성직물법(FFA), 유해물방지포장법(PPPA), 냉장고안전법(RSA), 화재담배안전법(FSCA) 등을 관장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는 가정, 학교, 레크리에이션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담배, 자동차, 살충제, 무기, 항공기, 선박,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을 제외한 품목의 안전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결합제품의 시정, 결합정보보고의무제도 등 결합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완구의 질식위험에 대한 사업자의 결합정보보고의무제도 등 리콜제도를 한층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연방위험물법(FHSA)에는 유해물질, 부패성물질, 자극성물질, 열 등에 의해 고압이 되는 물질(폭죽 장치), 전기적·기계적 리스크가 있는 어린이용 완구(실물크기의 유아용 침대), 일정량 이상의 납을 함유하는 뿔뿔 등에 대한 안전규제 내용을 포함한다. 가연성직물법(FFA)에는 의류직물의 가연성, 직물제의 가정용 인테리어, 어린이 잠옷의 가연성, 스몰카펫·매트리스 표면의 가연성 등 직물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규제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유해물방지포장법(PPPA)는 독극물 중독 방지를 위한 제품의 포장 및 라벨, 냉장고안전법(RSA)은 안쪽으로부터 가정용 냉장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장치, 담배화재안전법(FSCA)은 담배화재 안전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담당 행정부서를 보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환경에 관련된 건강문제는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담배제품 등 농산물은 농무부, 통신기기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각 주는 지역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제품안전 관련법을 입법화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규제의 통일성의 문제 때문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작성한 모델법에 준해 제품안전법을 입법화하고 있다.

안전규격 기관으로는 대표적인 공공단체인 국가표준협회(ANSI) 이외 전문분야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임의표준제정단체인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비영리법인으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임의규격제정 및 인증기관인 미국보험업자협회(UL), 미국 기계공학회(ASME) 등 600여 각종 규격제정단체가 있고 정부기관으로는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내 기술표준국이 있다.

## 나. 아동 안전

### 1) 아동안전 개요

아동 안전을 위하여 중앙 정부의 노력과 함께 주 정부 차원에서 지역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연방 모자보건국(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에서는 1993년 아동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980개)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에는 치명적인 상해에 대한 기준(180개)을 교사와 각 교육기관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주마다 보육시설 허가규정(Licensing regulation)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인 환경의 안전, 시설, 설비의 안전, 실내외 환경의 안전, 위험물 취급 안전, 교사의 안전능력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응급처치와 CPR(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사를 한 명 이상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 관리자와 교사는 아동안전과 건강교육을 15시간 이상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한 상해예방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전국 어린이 안전예방 단체인 National Safe Kids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 화재와 화상안전, 익사 사고예방, 중독과 쇼크예방, 추락예방 등 5개 영역의 주요한 아동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과 연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어린이안전보호법(The Child Safety Protection Act, 1994)과 같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입법화 활동 등을 통하여 두뇌손상을 막기 위한 헬멧착용, 화상사고를 막기 위해서 28개 주에서 온수의 온도를 50도로 조절하는 기구를 착안하는 법규, 아동이 있는 시설에서의 의무적인 연기탐지기 설치와 의무적인 방염처리 제품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법 제정, 아동안전시트 착용 의무화를 위한 법규의 제정도 이루어졌다.

아동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난감, 놀이터, 아동용 가구, 아동 보호 제품, 헬멧, 물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의 안전에 대한 규격화를 통하여 선진국 중 가장 모범적으로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사고유형별 안전 기준 내용

### 가) 승용물 안전사고

아동안전보호법에 두뇌 손상을 막기 위해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차량의 어린이 안전시트 착용 의무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7개 주에서는 자전거 헬멧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5년간 강력 추진한 결과, 자전거 관련 사망률을 60% 감소시켰으며 전동스쿠터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스쿠터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연령제한과 헬멧착용,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 나) 익사사고

수영장 사방 울타리를 설치하고, 문의 경보장치, 수영장의 경보장치, 수영장의 자동덮개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보트 이용시 물에 뜰 수 있는 개인보호장비(PED)를 착용토록 안전법을 제정하였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자발적으로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주거지내 수영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를 법률화하였다.

#### 다) 화재(화상)사고

콜럼비아주 등 많은 주에서는 소방법을 제정하여 연기탐지기 설치의 의무화와 방염처리가 된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화재경보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담배라이터에도 어린이 사용에 관한 안전장치 및 경고표시의무화 및 건물의 화상제어 배관장치(온수를 50도로 조절)를 의무화하는 법규를 만들었다.

#### 라) 낙상사고

어린이 보행기와 건축규정과의 관련성(문의 넓이, 문턱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놀이기구 제작기준을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에서는 화재를 대비한 단순 대피 시설을 가진 낮은 층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위해 디자인된 낙상방지용 창살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제정하였다.

#### 마) 놀이기구/용품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미국소비자연방(CFA)에 의하여 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재킷이나 스웨터와 같은 겉옷의 목끈과 허리끈으로 인하여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지침을 제시하였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기준 'Handbook for the Public Playground Safety'를 발간하였으며, 미국시험재료협회(ASTM)에서는 1993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공동으로 'Safety Performance Psecification for Public Use'를 발간하였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놀이시설의 바닥처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미국시험재료협회(ASTM)에서는 놀이기



구 자체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위험물질에 관한 법은 위험수준의 납성분 함유 장난감이나 어린이 용품 생산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안전보호법에서는 3~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조된 작은 공, 풍선, 구슬,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장난감은 질식위험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의 장난감 안전에 대한 소비자안전설명서 기준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장난감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한 장난감총은 진짜총과 구별하기 위하여 화기안전규제법에 의해 표시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바) 중독사고

중독예방포장법(1970)에는 30여 종의 가정용세척제, 의약품 등에 대하여 아이들이 개봉하기 어려운 포장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납성분 함유 페인트 위험 축소법(1992)을 통하여 납성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내 탐지기를 설치토록 법을 제정하였으며 약물중독관리센터 강화와 인식의 보급을 위한 법(2000)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홍보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 10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최소한 10%의 탄화수소를 포함하며, 농도가 묽거나 유질을 포함한 화장품과 가정용품에 대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포장용기(C-R Packaging: Child-Resistance Packaging)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내 화학제품 및 위험한 도구 수납용 불박이장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 사) 실내 안전사고

가정, 유치원 등 실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Stepping Stone to Using Caring for Our Children에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안전교육

### 1) 학교 안전교육

1920년대부터 주에 따라 독자적인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사고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초기 안전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주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주에서 안전교육을 유아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Florio & Alles, 1979), 안전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형태와 일치해야 하며 유아의 발달수준, 흥미, 필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계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1946년 교통안전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가 설치되고 ‘대통령 교통안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학교의 책임, 교육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에서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주는 주 단위의 교육법에 근거하여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초·중학교에서의 교통안전교육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다. New York 주의 경우 「안전교육」을 정식 교과과정으로 개설하여 연 20시간씩 안전교육,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유아교육기관 관리자와 교사는 어린이 안전과 건강교육을 1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Health and safe cod section 1596.866)하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 동승자 또는 승객, 자전거 이용자로서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자전거, 이륜차에 대한 안전지도 및 예비 운전자교육과 함께 교통안전 법규, 자동차 이용에 관한 개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운전자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을 위해서 유아교육기관 인가규정(Licensing Regulation)이 각 주마다 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는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인 환경의 안전, 시설, 설비의 안전, 실내외 환경의 안전, 위험물 취급안전, 교사의 안전능력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응급처치와 CPR(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사를 한 명 이상은 유아교육기관에 배치토록 명시하고 있다.

## 2) 지역사회 안전교육

특히 미국의 안전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찍이 조기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1964년 이래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안전마을(safety town)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예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20시간 짜리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아동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인 모의 상황에 접하여 그들의 연령 수준에 맞는 안전하고 올바른 행동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마을에는 축소된 집들, 소방서, 학교, 사무실 건물들이 만들어져있고, 실제 크기의 신호등과 철도 건널목 등이 세워져 있다. 이 때 어린이들은 안전벨트가 부착된 소형의 자동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실 안과 밖의 활동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은 안전보행 이외에도 화재, 독극물 등에서 오는 위험을 시험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며,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 및 간호사 등 실제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다(이명자, 1997).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하루 수업 종료 15분 전에 부모들로 하여금 수업에 참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로 하여금 아이들이 안전마을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한국안전생활교육회, 1993).

미국 National Safe Kids Campaign은 0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상해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 1987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47개 주에 지부가 있는 미국의 전국적인 아동안전예방조직이다. 이곳에서는 교통안전, 화재와 화상안전, 익사사고예방, 중독과 쇼크예방, 추락예방 등 아동들에게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5개 영역의 아동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과 연대적

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동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부모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끊임없이 인지시킴으로써 사고감소를 위한 노력에 반드시 부모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부들에게 어린 자녀를 위한 안전한 가정내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고자 'Baby Safety Shower'라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각종 안전정보를 교환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산업안전보건청을 포함, 주정부와 해당산업의 기업단체 및 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 안전문화의 확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풀뿌리 안전문화(Grossroot safety leadership)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과거의 안전동아리(Safety circle) 개념에 근거한 전통적인 안전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대두된 전략이다.

안전인식의 달(Safety Awareness Month) 캠페인, 안전문화 혁명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공유 및 구성원간의 신뢰를 구축하였다.

모자보건국에서는 건강한 아동보육 캠페인(Health Child Care America)을 벌이고 어린이 보육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자원센터를 설립, 지원하고 있다.

## 4. 스웨덴의 안전관련 정책

### 가. 안전정책

#### 1) 개요

아동안전에 대해서 보면 스웨덴 정부의 단호하고도 전략적인 노력으로 아동 안전사고율을 3/4이나 감소시켰다. 즉, 스웨덴은 0세에서 14세 아동의 심각한 사고가 1950년대 중반 약 400명에서 1990년대 초기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윤선화, 2000; Berfenstam & Soderqvist, 1992).

이러한 노력이 법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아동의 생활환경 속에서 위해 정보와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정과 학교, 놀이공간과 도로에서 아동안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해서 기존의 법규가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사고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건강복지부에서는 1989년 아동교육시설과 아동레저시설의 안전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이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내와 실외의 시설, 설비의 안전, 물리적인 환경의 안전, 건물과 대지의 안전 등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난감, 놀이터, 아동용 가구, 아동보호제품, 헬멧, 물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의 안전에 대한 엄격한 규격화를 통해 아동의 생활 속에서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설계법(The Plan and Building Act)에는 어린이가 생활하는 건물에 대한 “어린이 안전 필요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아동레저센터, 아동도서관 등 주택과 비슷한 공간은 동 법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건축 관련법의 이행감독을 위해 공공건강법(Public Health Act)에 환경관리국(Environmental Health Board)은 학교,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아동레저시설의 건물대지와 환경을 위한 특별한 감독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이 실제로 보호되도록 하여 법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상품안전법(The Product Safety Act)에는 위해제품의 판매금지, 주의경고사항, 리콜, 위해제품의 수출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 사고유형별 안전 기준 내용

아동교육시설과 아동레저시설의 안전에 관한 규범에는 실내·외의 시설, 설비의 안전, 물리적인 환경의 안전, 건물과 대지의 안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난감, 놀이터,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 보호제품, 헬멧, 물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의 안전에 대한 규격화를 하고 있다.

### 가) 승용물 안전사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안전청 규칙(Road Safety Office Regulations)에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영아용캐리어, 아동용시트, 벨트좌석이나 벨트쿠션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학교 통학안전을 위하여 학교수송법, 도로교통법, 도로안전국의 규정 등에는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5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특수 보호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 탈 때 뒤꿈치와 발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퀴살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고, 안전하게 앉도록 적당한 좌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유모차는 실수로 접히지 않도록 안전정지장치나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어린이가 찢릴 위험이 있거나 뽕족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브레이크와 바퀴는 꼭 조여있어야 한다.

### 나) 질식사고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원에서는 침대나 아동용품이 기능적이면서 표준과 안전지침상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호루라기나 악기 등은 느슨해져서 목에 걸리는 부품이 있으면 안되며, 음식모형의 장난감은 목에 걸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유모차나 영아용 침대에 끼여 질식사고가 나서는 안되며 30cm 이상의 끈이 달려서는 안되고 유모차 위의 신축성 있는 끈은 75cm 이상이면 안되며, 머리가 고리에 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리의 지름이 35cm 이상이어야 한다.

불량침대에서 레일사이에 질식되지 않도록 레일 간의 간격이 6.5~8.5cm로 규정되어 있고 부드러운 장난감의 느슨한 부품들은 꼭 조여져야 하며 고무 젓꼭지의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사우나실에서의 감금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에서도 문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중독사고

독극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특정한 캐비닛이나 선반에 의약품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 지은 건물에는 건강에 해로운 세제와 같은 화학물질은 별도로 높은 장 같은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덜 위험한 물질은 싱크대 아래 보관하되, 안전잠금장치가 있을 때만 보관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정용 화학약품은 뚜껑을 누르면서 동시에 돌려야 하고 또는 가루로 된 주방용 세제의 경우는 4세 이하 어린이가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성이 있으므로 아동에게 주의”, “삼키면 위험하므로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이라는 주의 경고 표시토록 안전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화재/화상사고

뜨거운 물로 인한 손상위험이 있는 경우 물의 온도가 38℃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요리기구들은 아동이 뜨거운 철판이나 오븐에 닿을 수 없도록 설계되거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바닥에서 80cm 미만에 놓여 있는 오븐문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요리기구들과 오븐 외부표면은 어린이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전기장치가 놀이방, 가정내 욕실, 세면실에 있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60℃, 다른 곳에는 90℃가 넘어서는 안된다.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벽면의 전기콘센트는 아동이 금속물체를 찌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바닥에서 적어도 1.7m 위에 있거나 영구적인 설비장치나 냉장고, 요리기구같은 용품에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마) 낙상사고

놀이시설 바닥은 40cm 깊이의 모래층으로 이루어진 충격흡수표면을 갖추어야 하

며, 어린이가 울타리 밑으로 기어가거나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추락(낙상)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면 위 1.8m 높이 미만에 있는 개폐가 가능한 창문은 아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잠금장치나 다른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베란다문은 아동이 그 문을 열고 다니지 못하도록 안전장치와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층계에서 계단 사이의 틈, 베란다 및 층계난간은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대피시 안전을 위하여 난간설계에 관한 주택법에는 폭이 넓은 계단을 둘 이상 평행하게 난간으로 나누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영아가 침대에 기어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옆이 최소한 60cm 이상 높아야 하며, 난간 사이의 간격은 8.5cm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유아용 보행기는 감독되지 않는 상태에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주의경고를 표시한다.

#### 바) 실내 안전사고

문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유리 표면은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놀이방이나 교실에 있는 문, 현관문은 부서지지 않도록 바닥높이에서 창문은 60cm, 문은 150cm 미만일 경우 단단한 플라스틱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유아원, 아동여가센터, 탁아소 등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과 실내 환경계획시 아동안전에 대해 의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에 관한 점검표를 마련하고 있다.

#### 사) 놀이기구/용품

장난감의 안전을 위하여 장난감구조에 관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안전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험한 장난감에 대하여는 판매가 불가능하다거나 경고문 부착과 결함제품의 리콜, 판매금지 조항이 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 안전을 위해 부품이 작아서 질식우려가 있어서는 안되며, 딸랑이 손잡이는 아동이 그것을 목 안에 깊이 집어넣을 수 없도록 아주 짧거나 길어야 한다. 부드러운 장난감에 부착된 부분은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금속으로 된 장난감 화살은 판매될 수 없으며, 권총이나 대포에 장전하여 발사하는 화살은 끝이 뾰족하지 않아야 하고 보호캡이 있어야 하며 너무 강하게 발사되어서는 안된다. 상업용 장난감 고무총과 고무줄새총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난감들은 경첩과 스프링과 같은 것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형 유모차와 장난감 다리미대는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타는 장난감은 뒤집어지지 않도록 안정되게 제작되어야 한다.

전기로 작동하는 장난감은 콘센트와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4볼트의 전류를 제공하는 변압기를 거치거나 건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완구의 소형건전지의 경우 질식 또는 중독방지를 위해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난감의 가연성에 관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음도 규제하고 있다. 호루라기나 악기 등은 느슨해져서 목에 걸리는 부품이 있으면 안되며 음식모형의 장난감은 목에 걸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놀이터 등 실외환경은 건축설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놀이터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Sweden Standards 99 10시리즈).

#### 아) 익사사고

어린이 물 놀이터나 수로의 물깊이가 20cm를 넘을 경우 우물뚜껑(25kg 이상) 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수영용 공기튜브와 같은 장난감은 non-return(바람이 빠지지 않고 보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별도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영장은 최소 90cm 높이의 울타리가 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울타리 밑으로 기어갈 수 없도록 땅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하며 수직난간을 오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여가용 부력장비는 부력, 색깔에 관한 필요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9~14세 의무교육과정 운동과목에 인명구조와 수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축부지의 웅덩이는 울타리로 쌓는 등 익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음판에 구멍을 내거나 통로를 만들어 굴착하는 등의 일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을 예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책임 규정이 있다.

#### 자) 학교안전

학교내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법(Work Environment Act) 및 공공건강법(Public Health Act)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것d;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환경의회(Child Environment Council)는 학생과 교사들이 위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경찰에게 목욕장소, 캠프장소, 운동장이나 경기장 또는 비슷한 시설에 적절한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많은 스포츠 연맹에서는 단체별로 안전규칙을 만들고 있다.

어린이가 칼, 곤봉, 못박힌 병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갖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보호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학교법령, 교육과정 등에는 사람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존 규칙이 있다.

1989년에는 아동교육시설과 아동레저시설의 안전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여 실내와 실외의 시설, 설비의 안전, 물리적인 환경의 안전, 건물과 대지의 안전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나. 안전교육

스웨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요람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퇴원할 무렵 각 지방자치 단체는 어머니에게 자동차에 부착하는 'baby seat'를 보내주는데 이것은 9개월 동안 무료로 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은 부모로 하여금 'baby seat'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또한 국립도로안전협회에서는 만3세가 되는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소포를 집으로 배달해주는데, 이 안에는 동화책과 퍼즐, 스티

커 등 아이가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교재가 들어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교재들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교통안전에 대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된다. 국립도로안전협회 내에는 어린이 교통클럽이 있는데 이는 1969년에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부모가 아이로 하여금 아이 주변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립된 것이다. 이 클럽에는 스웨덴 전체 인구의 1/4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어른과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실재를 겸한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활동의 하나로 국립어린이환경위원회(National Child Environment Council)가 ‘어린이들의 일상 위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0세에서 6세 이하의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사고예방용 OHP를 개발하였는데 전체 46가지 내용은 어린이의 성장단계에 따른 주위 환경으로부터 위험과 그 위험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유치원은 물론 일부 가정에서도 이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박남도, 1996).

#### 다. 안전문화의 확산

스웨덴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954년 스웨덴 의학협회 소아과 분과가 적십자와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원회와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위한 협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운동단체, 회원, 정부, 관계이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어린이환경협의회, 소비자정책원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가장 중요한 법률제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조직화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 5. 국제기구의 어린이 안전 강화 내용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어린이 권리’개념은 그 후 인권사상의 꾸준한 진전에 힘입어 이제는 어린이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어린이 자신이 스스로 권리를 향유하고 행

사할 수 있는 권리의 향유주체로까지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 안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어린이들의 정신적·신체적 완결성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려는 국가 및 국제사회의 노력은 일찍부터 각종 헌장, 선언, 조약 등을 통해 부단히 진행되어 왔다. 어린이 안전은 이 같은 어린이 권리 개념의 확산에 힘입은 바 크며 상호 밀접한 관계를 두고 발전해 온 것이다.

#### 가. 영국의 「어린이 구제기금단체헌장」(1922년)

전쟁 등의 재해가 어린이들에게 중대한 신체상의 퇴화를 가져와 인류의 진보와 행복이 위협에 노출된 것을 인식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어린이의 생명을 수호할 것을 호소하였다.

#### 나. 국제연맹의 「어린이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처참한 전쟁의 희생물이 된 어린이를 구제하고 보호한다는 최초의 국제적 선언이다. 이 선언의 주요 골자는 다섯 가지인데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항목으로 주장되고 있다.

#### 다. UN의 「어린이 권리선언」(1959년)

UN이 그 전신인 국제연맹이 채택했던 제네바 선언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또한 세계인권선언(1948)과의 관계에서 아동을 인권주체로서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59년 제14회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어린이의 생존과 생활·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 라. EC 공중위생위원회의 「공중위생문제로서의 어린이 사고」 연구보고서 발간(1972년)

#### 마. UN의 「국제 아동의 해」 선포(1979년)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선포하였다.

#### 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어린이를 위해 안전조치 권고

1980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1979년 ‘UN 국제 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실시된 어린이 안전조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각 회원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아동들을 위한 안전조치 권고안”을 채택하여 아동안전을 위해 아동과 관련된 제품 및 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어린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안전표시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안전조치의 효과를 분석하도록 회원국에게 제안하였다.

#### 사.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상 어린이 안전조항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의 건강과 관련하여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와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를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어린이 자신의 고유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향유할 일반적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가정에 있어서 어린이의 행복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어린이는 이제까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되어 왔으나, 본 조약을 통해 어린이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권리의 향유주체임과 동시에 권리 행사 주체로서 국제법상 인정이 되었다.

#### 아. 세계보건기구(WHO) 어린이 안전 조치

2000년 3월에 상해 및 폭력 예방과 안전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즉, 상해폭력예방부(Department of Injuries and Violence Prevention)를 산하기관에 설치

하여 도로교통상해, 중독, 추락, 화재, 익사 등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제 2 절 외국 안전 관련 정책의 시사점

이상과 같은 외국 안전정책을 기초로 안전 관련 제도와 안전교육, 안전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안전관련 독립법 또는 각종 다양한 개별법을 통하여 아동이 이용하는 물품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그 동안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학교나 유아교육 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 각종 단체나 클럽 활동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 안전교육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 번째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안전을 염두에 두는 습관과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전에 관하여 국가의 관여가 강화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에 관한 국제적 발전과정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즉,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40년대까지는 전쟁 등 국가 간의 재해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의 구제 및 보호가, 그리고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기아, 학대, 착취, 문맹 등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가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관심이었으나, 70년대 이후로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위원회(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소비자연맹(IOCU) 등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사가 각종 위해·위험 소비자 제품·영역 및 시설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즉, 어린이 안전문제에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제 5 장 안전교육 프로그램

### 제 1 절 안전교육

#### 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 가. 유치원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등 5개 생활영역 중 건강생활영역 및 사회생활영역에서 안전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1) 건강생활영역

건강생활영역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통 안전 규칙 지키기, 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 환경오염이나 재해에 대비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안전하게 놀이하기는 유아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하고, 실내·외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감이나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길러주는 내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놀이시설에 의한 사고이며, 유치원에서 놀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 놀이 안전의 주요 내용은 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규칙을 알고, 친구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안전한 놀이감을 선택하고 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네나 미끄럼틀, 복합 놀이 기구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고, 그네 주변이나 미끄럼틀 아래, 자전거길 주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다. 또 자전거나 롤러, 인라인 스케이트, 물놀이 등을 할 때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복장이나 규칙도 알고 지키게 한다.

둘째, 교통안전규칙 지키기는 유아가 교통안전규칙의 중요성과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이해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승용차나 지하철, 버스 등 교통기관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알고 교통 신호와 교통 안전 표지를 이해하고 안전한 보행이나 도로 횡단 등의 보행 안전 규칙 지키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에서는 유아들이 높은 곳, 미끄러운 곳, 기타 위험한 장소나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나 이물질의 위험을 인식하고, 그러한 장소나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내용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괴나 미아 사고 및 성폭력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만약의 경우 대처하는 방법도 알게 한다.

넷째, 환경 오염이나 재해에 대비하기는 유아들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고 환경을 보호하는 태도를 기르며, 환경의 훼손을 막음으로써 화재나 지진, 태풍, 홍수 등 인재나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대피 훈련을 하는 내용이다.

## 2) 사회생활영역

이 영역에서는 기본생활 습관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며 사회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함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통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의 동네 이름, 모습, 주변의 여러 기관을 알아보고 교통, 이동하는 방법 등을 다루며, 지역 문화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생활영역에서 목표로 삼는 교육 내용이다.



## 나. 보육시설

표준보육과정은 아직 정식으로 공고되고 있지는 않으나 보육에서 안전은 매우 주요한 부분으로 만 4세아 안전 보육과정을 소개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만 4세아 안전 보육과정

- 
-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면서 기본적인 안전생활 습관을 몸에 익힌다.
    - 안전하게 먹기
    - 안전하게 놀이하기
    -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기
    - 생활도구 및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익히기

---

  - 위험한 물건, 장소, 사람, 상황 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
    - 위험한 물건을 발견했을 때에는 만지지 않고 즉시 성인에게 알리기
    -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위험을 알고 사고 발생시 대처하는 훈련하기
    - 화재의 위험을 알고 화재발생시 대피하는 훈련하기
    - 학대나 유괴에 대해 알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알기
    - 인재,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방법 익히기

---

  - 안전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자율적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위험상황을 분별하기
    - 위험원인에 따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하기
    -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 기르기

---

  - 보육목표 4: 가정,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한다.
    -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알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 익히기
    - 학대, 유괴상황에 대처하기
    - 인재,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사회 도움기관의 기능과 이용방법 알기

---

  - 보육목표 5: 타인의 안전을 배려한다.
    -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 협동하여 놀이하기
    - 적절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알기
    - 폭력과 반사회적 행동의 문제 인식하기
- 

자료: 변용찬 외, 『표준보육과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변용찬 등이 개발한 표준보육과정은 아동월령 및 연령별로 상세하게 나누어

있는데, 만4세아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생활 습관, 위험한 물건, 장소, 사람, 상황 등에 대한 이해 및 대처, 안전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 인지 및 자율적 적절한 대처, 가정,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타인의 안전 배려로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현장 체험 프로그램

안전교육을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시민 안전체험관과 어린이 안전학교, 어린이 교통공원 정도를 들 수 있다.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은 2003년 3월에 개장하였는데 화재, 지진, 붕괴사고 등 가상재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20여종의 체험코너를 설치해 놓고 있다. 유아들에게 그림이나 사진, 방송매체로 막연히 경험했던 재난 등을 직접 체험하고 대피하는 요령이나 대처방법 등에 대해 소방관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어린이 안전학교는 2001년 6월 처음으로 개장해 어린이들에게 흥미요소를 가미한 현장 체험식 교육과 상호작용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유발요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리고 어린이 스스로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만들어졌다. 교육내용은 생활 속의 위험요소 찾아보기,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부실 건축물에서 위험요소 찾아보기 등 시설물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사고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정보와 도로안전, 질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자그마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진 인도, 차도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있다. 빨간색, 황색, 녹색 신호등이 들어오는 순서와 자동차의 진행방향, 인도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등 어린이들이 손쉽게 체험하며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한 자동차를 탄 어른들의 심리를 알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운행하며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교통경찰관이 동행하여 각종 교통 표지판도 외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3. 부모 안전교육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아직 걸음마기에 불과하며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 및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도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규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도 부모를 위한 안전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정도이고,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및 필요성을 절감하는 몇 개 기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보면, 먼저 한국안전생활교육회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자녀의 사고방지와 안전대책」을 주제로 연 20~30회 정도 부모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부모 안전교육의 내용은 유아의 발달적 특징과 안전사고의 위험, 자녀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 가정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자녀를 사고로부터 지키는 방법 40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11)</sup>.

민간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2001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주말 어린이 교통안전캠프」 강좌를 개설하여 부모님에게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부모님이 자녀의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안전에 대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은 인터넷 사이트와 서적, 소책자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 역시 외국자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외국의 경우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실행

11)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는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시간 정도의 연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내용은 교육청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유아발달심리, 부모교육, 유치원교육과정, 놀이이론과 실제, 조기특수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강남교육청, 중부교육청, 동작교육청, 강원도 속초교육청 등에서는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하거나 아동안전 법규 제정시 이러한 내용 속에 반드시 부모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부모안전교육의 중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체계적이며 실제중심의 부모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민간단체,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부모안전교육 및 자료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임지선, 2001).

## 제 2 절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례

### 1. 우리나라 안전교육 프로그램

#### 가. 교육인적자원부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자료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는 유아교통안전 교육자료 CD-Rom, 부모를 위한 안전교육 자료 CD-Rom과 유치원통학버스 운전자를 위한 리플렛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유아 교통안전교육 자료

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자료는 통학로 안전, 안전한 횡단장소와 방법, 날씨와 보행 안전, 놀이용 탈 것 안전, 버스이용안전, 승용차 이용안전의 6개 주제로 모두 21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서술방법은 활동목표 활동형태, 준비물, 활동방법, 확장활동, 유의점, 교사를 위한 유의점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각 주제별 관련 내용을 삽화, 사진, 도표 등으로 제시하고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5-2>는 이러한 자료의 구성을 나타내며, <표 5-3>은 이를 영역으로 다시 분류하여 교사가 실제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2〉 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활동자료

영역	활동명	활동유형	주요개념
통학로 안전	안전한 곳으로 걸어 다녀요	언어	위험한 도로 상황
	안전한 길을 찾아주세요	이야기나누기	안전한 통학로 찾기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야기나누기	자동차와 보행안전
	나랑 부딪칠 뻔 했잖아	동화 동극	
	자동차의 표시등	조작놀이	
안전한 횡단장소와 방법	어디로 건널까?	동시	안전한 횡단장소
	안전마을 만들기	쌓기놀이	
	멈춰라	음률	안전한 횡단방법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이야기나누기	
	횡단보도를 건너요	신체활동	
	무엇을 도와주는 것일까?	역할놀이	
날씨와 보행 안전	우산을 바로 세워 들고	신체표현	비오는 날의 보행안전
	노란 비옷	동화	
놀이용 탈 것 안전	야광 반사기 만들기	조형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자전거 면허시험장	실외놀이	
버스이용안전	버스를 탑니다	신체표현	버스 승하차시 안전
	안전손잡이	음률	버스 안에서의 안전
	버스를 좋아하는 너구리	동화	버스 주변에서의 안전
	버스 여행	언어	탑승안전
승용차 이용안전	안전띠 수호천사	동화	안전띠
	차안에서 약속을 지켜요	조작놀이	승용차 안에서의 안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표 5-3〉 활동유형별 활동내용

영역	활동명	주요개념	
자유선택활동	언어	안전한 곳으로 걸어 다녀요	위험한 도로 상화
		버스 여행	탑승안전
	조작	자동차의 표시등	자동차와 보행안전
		차안에서 약속을 지켜요	승용차 안에서의 안전
	쌓기놀이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한 횡단 장소
	역할놀이	무엇을 도와주는 것일까?	안전한 횡단방법
조형	야광 반사기 만들기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집단활동	이야기 나누기	안전한 길을 찾아주세요	안전한 통학로 찾기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자동차와 보행안전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안전한 횡단방법
	신체표현	우산을 바로 세워 들고	비오는 날의 보행안전
		버스를 탑니다	버스 승하차시 안전
	음률	멈춰라	안전한 횡단방법
		안전손잡이	버스 안에서의 안전
	동시동화동극	나랑 부딪칠 뻔 했잖아	자동차와 보행안전
		노란 비웃	비오는 날의 보행안전
		버스를 좋아하는 너구리	버스 주변에서의 안전
		안전띠 수호천사	안전띠
		어디로 건널까?	안전한 횡단 장소
	실외놀이	자전거 면허시험장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신체활동	횡단보도를 건너요	안전한 횡단방법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2) 부모 안전교육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도에 개발한 부모 안전교육자료는 가정통신문, 가정에서의 활동자료와 부모회 강의 자료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5-4>는 생활주제별 가정통신문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활동자료를 나타낸다. 가정통신문은 35개이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활동자료는 9개이다. 한편 부모회 강의 자료는 교통안전과 화재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4〉 생활주제에 따른 부모안전교육자료

자료명		안전영역	관련생활주제
가정통신문	활동자료		
자녀의 옷,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복장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안전한 유치원 생활, 부모의 몫입니다		유치원 안전	나와 유치원
유치원, 어떻게 가야 안전해요?		보행 안전	나와 유치원
건너기 전에는 멈춰 서서 살펴보세요	그림과 표정을 연결해 주세요	보행 안전	나와 유치원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하게 이용해요		자동차 안전	나와 유치원
귀여운 우리집 애완동물, 위협할 수 있어요	동물의 신호를 알려주세요	동물 안전	동물
동물원의 동물, 위협할 수 있어요		동물 안전	동물
어린이 미아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전카드를 만들어요	신변 안전	가족과 이웃
자녀가 이용하는 놀이터는 안전합니까		탈 것 안전	가족과 이웃
엄마, 안전한 놀이감을 사주세요		장난감 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자녀에게 헬멧을 씌워주세요	안전보호장구 기억게임	탈 것 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아빠! 나에게 맞는 탈 것을 골라주세요	자녀의 자전거, 점검해보셨나요?	탈 것 안전	교통수단
낮선 사람은 무서운 늑대의 얼굴이 아니에요		신변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아빠! 낮선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신변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성폭력사고, 자녀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신변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안전한 물놀이, 즐거운 물놀이	수건으로 준비운동을 해보세요	익수 안전	계절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익수 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휴가철 안전가이드		휴가 안전	계절
우리집 안전지수는?	안전표어를 만들어보세요	가정 안전	가족과 이웃
집안의 위험한 도구는 안전하게 보관해요		가정 안전	기계와 도구
추락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합시다		추락 안전	기계와 도구
잠금장치 “딱” 안전사고 막아요		가정 안전	기계와 도구
부모는 약사가 아닙니다		약물 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우리가족은 안전한 승객		자동차 안전	교통수단

〈표 5-4〉 계속

자료명		안전영역	관련생활주제
가정통신문	활동자료		
안전벨트, 생명벨트		자동차 안전	교통수단
편리한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이용해요		승강기 안전	기계와 도구
승강기 안전하게 이용해요		승강기 안전	기계와 도구
안전덮개를 씌워주세요		전기 안전	기계와 도구
유아들은 쉽게 데일 수 있어요		화재 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내옷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나면 집밖으로 나가세요	화재 안전	건강한 몸과 마음
	내 옷에 붙은 불을 꺼주세요		
겨울철 안전보행		보행 안전	계절, 교통수단
코피가 나면 머리를 뒤로 젖힌다?		응급처치	건강한 몸과 마음
우리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렸어요		응급처치	건강한 몸과 마음
우리아이에게 꼭 필요한 안전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발행 초등학교 교사용 어린이 안전교육 지침서'

이 지침서는 '어린이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 교육 지도의 실제'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지도내용을 예시적으로 제시해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내용은 '지도목표', '지도의 강조점', '사고의 줄거리', '생각해 볼 문제', '안전교육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5〉 초등학교 교사용 ‘어린이 안전교육 지침서’ 중 ‘어린이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 교육 지도의 실제’ 부분

안전교육영역	사고제목	비고
폭발물 안전, 화재안전	1. 화약놀이	지도목표, 지도의 강조점, 사고 줄거리, 생각해 볼 문제 안전교육사항 으로 구성
기계안전	2. 브레이크가 왜 손톱을?	
폭발물안전, 화재안전	3. 부탄가스의 위력	
교통안전(보행자안전)	4. 갑자기 달려든 자동차	
여가안전	5. 빙글빙글	
교통안전(자전거안전)	6. 자전거는 타기 전에 점검해야	
수상안전, 여가안전	7. 눈으로 빨려 들어가 용우	
여가안전, 작업안전	8. 빗길에 미끄러짐	
화재안전	9. 전기는 늘 조심해야	
계단보행	10. 계단에서는 언제나 조심조심	
물놀이안전	11. 개울바닥의 유리조각	
가스안전교육	12. 가스렌지 점화 스위치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서	
기계안전	13. 위험한 호기심	
수상안전	14. 위험을 무시한 자만심	
실내안전	15. 떨어진 나무도마	
실내안전	16. 내 손가락의 흉터	
스포츠안전	17. 공터의 철조망	
놀이안전, 실내안전	18. 목구멍에 박힌 손가락	
놀이안전	19. 난간에서의 장난은 위험천만	
실내안전	20. 미끄러운 마루바닥	

#### 다. ‘세이프키즈 코리아’의 어린이 안전교육 자료

세이프키즈 코리아 한국지부에서도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교통안전, 화재안전, 자전거 안전, 물놀이 안전, 학교안전, 가정안전, 스포츠안전, 중독안전, 질식안전 등으로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것으로 대상별로 세분하고 있다(표 5-6 참조).

〈표 5-6〉 세이프키즈 코리아의 어린이 및 부모 안전교육 자료

유형	교재 제목(해당연령)	내용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약속해요 (유치원 어린이용)</li> <li>- 교통안전생활 (초등학교용)</li> </ul>	보행안전, 버스안전, 길건너기,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교통안전일기, 자동차 안전, 도로에서의 위험행동, 교통안전 표지판
화재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조심하는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용)</li> <li>- 우리는 불조심하는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용)</li> <li>- 어린이를 위한 불조심 이야기 (초등학교 고학년용)</li> </ul>	불의 위험성, 화재발생원인, 화재신고법, 화재시 대처법(소화기 사용법, 대피방법), 화재진압법, 정기화재 안전점검
자전거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하게, 재미있게 자전거를 타요(유치원 어린이용, 초등학교 저학년용)</li> <li>- 자전거 안전 운행 (초등학교 고학년용)</li> </ul>	보호장구 착용, 자전거 선택법, 교통안전 표지판, 자전거 안전점검, 안전한 주행법(안전수칙), 수신호 익히기, 상황예측훈련
물놀이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물놀이(유치원 어린이용, 초등학교용)</li> </ul>	수영도구, 입수준비운동, 수영장 바다, 계곡과 강에서의 물놀이안전, 겨울철 얼음판 위에서의 놀이안전
학교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학교생활 (초등학교용)</li> </ul>	등,하교시 안전, 수업 중 안전, 교실 내 안전, 복도나 계단에서 안전, 화장실에서의 안전, 운동장에서의 안전, 기타 학교생활안전
가정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우리집 (부모님 및 보육교사용)</li> </ul>	주거공간별 안전수칙, 안전용품 소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소화기 사용법 등
스포츠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스포츠와 놀이활동 (초등학교 고학년용)</li> </ul>	놀이기구(스케이드 보드, 킥보드 등)와 어린이 스포츠(코트 스포츠, 스키 등) 전반에 관한 안전수칙, 놀이터 안전수칙
중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중독 사고</li> <li>-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부모님 및 보육교사용)</li> </ul>	중독사고 유형, 응급처치, 중독 용품별 사고 예방 수칙, 중독사고예방을 위한 점검표
질식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질식사고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부모님 및 보육교사용)</li> </ul>	질식사고의 원인별 예방책, 응급처치 요령

## 라. 작은책의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작은책은 특히 영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내용은 소중한 등 10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표 5-7>과 같다

<표 5-7> 작은책의 영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주제	내용
내용은 소중한	‘위험한 행동과 안전한 행동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인형 놀이를 해요’, ‘나의 머리와 등뼈는 소중한’, ‘119 놀이를 해요’
자동차 안전	‘차에서는 안전띠를 매요’, ‘버스놀이를 해요’, ‘교통신호를 알아요’, ‘교통경찰관 놀이를 해요’
보행자 안전	‘멈춰서 보고 들어요’, ‘신호를 기다려요’, ‘교통신호 놀이를 해요’, ‘길건너기를 도와요’, ‘항상 주의깊게 보아요’
운동안전	‘안전현장 견학을 해요’,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는 조심해요’, ‘누가 안전하게 입었을까요?’
놀이안전	‘규칙을 만들어요’, 놀이할 때는 조심해요’, ‘안전하게 놀이해요’, 신체놀이를 해요’
추락, 미끄러짐에 대한 안전	‘안전 규칙을 만들어요’, ‘나는 도울 수 있어요’, ‘안전하게 행동해요’, ‘정리함을 만들어요’
위험한 물건에 대한 안전	‘ 위험한 물건은 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고 속을 열어 봐요’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해요’, ‘깨끗한 환경이 좋아요’,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만들어요’, ‘깨끗한 물이 좋아요’, ‘나무를 심어요’, ‘지구를 살려요’,
낮선 사람과 성학대에 대한 안전	‘낮선 사람을 조심해요 I,II’, ‘내 몸의 소중한을 느껴 보아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에 대한 안전	‘불이 날 수 있어요’, ‘소방관 놀이를 해요’,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 부록 : 안전가정통신문, 안전문제해결 사고검사도구, 안전지식 검사도구, 사고행동 체크리스트, 영유아들의 비안전 행동 목록, 안전교육프로그램의 교수자료 목록

#### 마. 기타 자료 및 프로그램

이외에도 그 동안 개발된 아동 안전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위기 대처능력 및 안전사고 예방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3년 ‘사례로 살펴본 안전생활’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장소, 계절, 상황에 따른 다양한 위기사례를 삽화, 사진, 도표 등으로 제시하고 각 사례마다 사고예방법 및 위기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내용은 안전한 가정생활, 안전한 학교생활, 여러 곳에서의 안전, 교통안전, 자연재해, 전시국민행동, 중독, 전염병, 응급처치로 구성되어 있다.

ILO(1980)는 화재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가스, 전기기구, 성냥, 라이터, 교육 실험용 화약 등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교육할 것을 권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초빙된 소방관의 강의, 소방서 견학을 통해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학교안전공제회, 2001).

김신정(2001)은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주의력 영역으로 나누어 강의, 발표, OX퀴즈놀이 등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교육에는 그림, 교육책자, OHP 등의 교육매체가 사용되었으며 1회에 30분 내로 내용을 구성, 아동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였다. 교육 결과 동작의 속도, 행동특성, 종합판정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아동이 높은 점수를 보여 안전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김일옥과 이자형(2001)은 학령전 아동의 보육시설내 안전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보육시설내 안전, 가정 및 기타 실내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수매체(놀이 및 토의, 실습 등)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과물을 CD-ROM으로 제작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배정이(2003)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 국내외의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내용

은 모두 11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8단원은 아동을 위한 교육내용을, 9~11단원은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생명존중사상, 사고의 개념, 고위험 상황 인지, 안전수칙 등 사고발생 가능상황을 제시하여 사고예방과 올바른 대처능력의 습득을 유도하였다.

김미나(1997)의 유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는 유아 성폭력 예방의 기본 개념인 ‘개인안전’, ‘접촉과 느낌’, ‘자기주장’, ‘보고와 지원 체계’ 그리고 ‘성 가치관’이라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5세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연간교육계획의 주제에 적절한 성폭력 예방 관련내용을 연결시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바. 온라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정부 및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안전교육사이트는 <표 5-8>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8> 정부 및 민간 운영 사이트

웹사이트명	내 용	운영자
정부 운영		
중앙 119 구조대 http://www.rescue.go.kr	‘어린이 마당’에서는 119신고요령, 어린이 응급처치, 어린이 사고예방, 안전한 놀이환경, 안전한 보행, 안전한 학교생활, 야외에서의 안전, 자연재해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음.	중앙119 구조대
부산소방본부 http://www.busan119.or.kr	어린이를 위한 화재, 구조, 구급 및 소방동요 등 어린이소방 안전 관련내용을 수록.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도봉구 보건소 http://www.dobong.go.kr	도봉구 보건소가 ㈜ 에임클럽의 nurscape.net과 연계해 ‘어린이 사고예방’에 관한 안전교육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응급처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제로 운영.	도봉구 보건소
안전도시 수원 (Safe Suwon) http://www.safesuwon.or.kr	아시아에서 최초로 안전도시로 지정된 수원시가 도시안전을 위한 사이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의 정책사업 소개와 안전교육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수원시

〈표 5-8〉 계속

웹사이트명	내 용	운영자
민간운영		
어린이 안전학교 <a href="http://www.go119.org">http://www.go119.org</a>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 웹사이트. 교통안전, 화재안전, 학교안전, 가정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식품안전, 놀이안전, 응급처치,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교육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음.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안 제공,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소
어린이 안전학교 <a href="http://www.schoolisafe.com">http://www.schoolisafe.com</a>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 안전학교(6,7세 어린이를 위한 안전 체험학습장)’의 안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전반적인 생활안전에 대해 간단한 정보를 그림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꼬마 안전짱 <a href="http://ccoma.redcross.ac.kr">http://ccoma.redcross.ac.kr</a>	취학전 어린이 및 부모를 위한 안전교육용 사이트, 어린이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기법을 도입해 제작했으며 글을 익히지 못한 어린이를 위하여 음성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안전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있음. 특히 ‘신나는 공부방’은 인터넷을 통해 유아교육시설에서 직접 교육에 적용할 수 있어 유용함.	적십자 간호대학 어린이안전 교실
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a href="http://life.edunet4u.net/parents/ld1.html">http://life.edunet4u.net/parents/ld1.html</a>	부모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대책’과 ‘자전거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이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구성과 내용 모두 무리가 있음.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a href="http://www.kidsafety.co.kr">http://www.kidsafety.co.kr</a>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 어린이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부모와 교사를 위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음.	인제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안전마을 <a href="http://www.119kid.com">http://www.119kid.com</a>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 교사에게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은 직접 퀴즈를 풀거나 퍼즐 문제를 내보고, 안전사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제공	개인
I love 아이사랑 <a href="http://www.kidthink.co.kr/main.html">http://www.kidthink.co.kr/main.html</a>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방법이 소개되어 있음. 그외에도 교통안전 동영상, 교통 캠페인, 기타 교통안전 관련정보 수록	
세이프키즈 <a href="http://www.safekid.or.kr">http://www.safekid.or.kr</a>	다양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통계자료 수록	세이프키즈 한국지부

2. 미국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자들에 의한 개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Scott(1992)의 「사고예방: 유아용 안전교육과정(prevention injury: A safety curriculum for preschool- kindergarten)」에서는 등뼈척수 사고와 뇌의 외상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발달, 유아교육, 예방심리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안전사고가 우리 몸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한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통해 안전행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증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행동적 시연, 실습, 상호작용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 보행자 안전, 자전거 안전, 놀이 안전, 운동 안전, 추락 예방, 위험한 물건에 대한 안전, 물에 대한 안전의 8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Pickle(1989)의 「안전교육 프로그램(Safety education program)」은 유아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0주 동안의 교실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연습을 통한 음악, 미술, 언어발달을 위한 활동으로 실행되었고 보행자 안전, 독극물에 대한 안전, 물에 대한 안전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 영역에서는 교통 안전지식을 확장하고 이와 같은 지식을 실제 유아들이 길을 건널 때 적용하는지를 관찰과 토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독극물에 대한 안전 영역에서는 유해한 이물질을 알고 인접지역에서 나는 야생독초에 대한 이해와 먹어서는 안되는 물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토의, 관찰, 복습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에 대한 안전 영역에서는 물에 관련된 안전지식을 넓히고 부모에게 독극물 검사지를 보내어 안전지식을 확인하였다.

Clark과 Simmons(1986)는 「가정안전교육과정(Safe-At-Home Curriculum)」을 통하여 게임식의 안전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다. Safe-At-Home은 가정에서의 안전(home safety)개념을 집단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안전에 대한 실제 연습과 불에 대한 안전, 물에 대한 안전, 위험한 물건, 이물질 흡입간의 원인결과 연결의 형성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경험을 강조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아들의 안전지식 수준이 개선되었다.

〈표 5-9〉 미국의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구분	Safe-At-Home Curriculum Clark과 Simmons(1986)	Safety skill training: Freda(1994)	Food safety program; Hughes(1992)	Safety education program; Pickle(1989)	A safety curri. for preschool; Scott(1992)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의 역할과 기능알기</li> <li>· 화재시의 대피요령 알기</li> <li>· 올바른 식습관 기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의 의미와 인과관계를 인식</li> <li>· 의사소통, 의사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관련 안전개념 형성</li> <li>· 손씻기, 음식다루기, 저장 등의 기초지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안전 의식을 함양</li> <li>· 교통안전, 독극물, 물에 대한 안전지식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뼈사고와 뇌의 외상사고 예방</li> <li>· 올바른 안전행동에 대한 인식 증가</li> </ul>
해당 안전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과 불에 대한 안전</li> <li>· 가정안전</li> <li>· 이물질 흡입</li> <li>· 위험한 물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학대, 유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안전</li> <li>· 독극물에 대한 안전</li> <li>· 물에 대한 안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의 소중함</li> <li>· 자동차 안전</li> <li>· 보행자 안전</li> <li>· 운동 안전</li> <li>· 추락 안전 등</li> </ul>
교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교수자료(그림, 사진, 실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세미나, 보조자료 (비디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 손인형, 활동자료집을 통한 게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자료, 그리기, 교통신호, 관련동화, 게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 인형, 사진, 실물, 게임, 그림자료 등</li> </ul>
교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식의 안전수업</li> <li>· 원인-결과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를 통한 간접교육</li> <li>· 비디오 따라하는 역할놀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 나누기, 토의, 부모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안전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활동과 연계하여 실제 안전행동 연습</li> <li>· 토의, 안전행동 관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신체, 미술활동</li> <li>· 예행연습, 실습, 토의, 탐구, 역할놀이 등</li> </ul>

자료: 곽은복,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2000. 재인용.

Hughes(1992)는 4~6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음식안전 프로그램(Food Education Program)」을 고안하였다. 교사메뉴얼, 활동메뉴얼, 부모소식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4개의 비디오에서 손 인형들을 가지고 유아에게 오락을 통해 음식안전주제들을 소개하는데 이용하였다. 벌레나 세균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 과자 같은 흘리기 쉬운 음식을 알맞은 방법으로 먹는 방법, 음식의 용기를 여는 방법, 국수류를 먹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손씻기, 음식 다루기와 저장, 미세한 세균의 유해성 등과 같은 음식안전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음식안전 개념을 강화하고 부모를 돕기 위해 부모에게 소식지를 보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6 장 부모 안전교육 자료 개발

### 제 1 절 기본방향

여기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자료는 가정내 아동안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위한 안전 교육자료이다. 부모는 아동의 보호자로, 가정내 환경조성자로, 자녀에 대한 모델 및 교육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지므로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수준은 아동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권 보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은 가정이고, 이러한 가정은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사고의 56.1%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내 안전은 대부분이 구조적이나 물품의 결함보다도 부모나 아동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결국 부모의 안전의식 부족이 가정내 사고의 주원인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부모 안전교육 자료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안전교육자료의 활용 대상을 미취학 어린이를 둔 부모 및 보호자로 한다. 그러므로 미취학 어린이는 발달 단계상 호기심이 많지만 행동조절능력이나 분별력은 부족하다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부모에게 아동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에게 이를 주지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미취학 어린이의 주된 생활 장소가 가정임을 고려하여 내용을 가정내 안전사고 중심으로 구성하되, 아동의 생활 및 행동반경을 반영하여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기본적으로 유의시켜야 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이동시의 교통안전, 놀이 관련 안전과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셋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이고, 안전이라는 가벼울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약간의 삽화는 포함하되 너무 화려하지 않은 톤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제 2 절 교육자료의 개발 과정

본 교육자료는 총 3회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작하였다.

### 1. 교육자료 내용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교육자료 내용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에서는 교육자료의 범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정에서 기구 등 시설이나 물품에 의한 안전사고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범주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부모대상의 교육자료이므로 부모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정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관련하여 내용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우선 성폭력 예방, 성폭력사태 등에 관한 내용이 안전교육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동에게 교육을 하는 곳이 없으므로 아동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내 안전에 중점을 주지만 교통이나 놀이 등 집 주변에서 부모의 주의 소홀로 일어나는 사고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아동에게 밝은 옷만 입혀도 교통사고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부모교육을 통해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2. 1차 시안 개발 및 자문

1차 시안은 1차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마련하였다. 1차 시안 검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에게 안전관련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이 자료가 분량이 한정되어 있는 바, 추가정보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 항목을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가정내 사고의 상당수가 방과 거실, 베란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실에 걸려 있는 무거운 물건, 베란다 창문 등의 세부적인 주의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교통안전에 대한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함축할 필요가 있다

## 3. 2차 시안 개발 및 자문

이상과 같은 1차 시안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차안을 만들었다. 2차안에 대해서는 과상풍에 대한 주의와 대처방법을 신도록 하자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 이외는 전반적으로 부모들이 어린이 안전문제를 제고하고, 매일의 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가정에서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안전상황들을 취합하였고, 치명적인 위험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예방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교육내용은 발간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4. 최종안 확정 및 디자인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편집 전문가관에 편집을 의뢰하였다. 편집은 연구진과 협의 하에 일부 수정과정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 제 3 절 교육자료의 구성 및 내용

### 1. 교육자료의 구성

자료의 구성은 크게 도입부분, 본문 및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도입부분은 표지, 들어가는 말, 부모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수칙, 가정내 안전의 중요성, 본 자료의 목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본문은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가정내 안전, 화상 및 화재, 중독과 질식, 교통안전, 놀이 안전, 성폭력 및 유괴, 응급처치이다. 셋째, 마무리 부분에는 어린이안전 관련 인터넷 추천사이트와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를 담도록 하였다.

### 2. 교육자료의 내용

#### 가. 도입부분

표지와 다음의 두 쪽을 도입부분으로 설정하고 부모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수록하고 안전사고의 특성 및 가정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1) 표지

교육자료의 제목은 『엄마 아빠, 나를 지켜주세요!』로 하고 부제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부모님 가이드북』을 추가한다.

표제에는 전체 내용을 축약하여 집, 놀이터, 건널목, 골목 등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위험한지 잘 모르므로, 부모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수록한다.

##### 2) 엄마, 아빠가 지켜야 할 7가지 안전수칙

먼저 아이들의 안전은 엄마, 아빠의 몫이고, 아차! 하는 순간 우리 아이에게 위험이 올 수 있으므로 엄마, 아빠가 지켜야 할 7가지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 가정내의 위험요소를 어린이의 시각에서 점검해 봅시다.
- 질식, 감전, 베임, 화상,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추락, 익사 등 있어날 수 있는 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고 평소에 사고 예방법을 생각해 보는 습관은 큰 도움이 됩니다.
-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숙지합시다. 위험요인은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 자녀에게 안전교육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고 생활 속의 실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TV, 동화책, 컴퓨터에 나오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아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자체로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를 혼자 집에 두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대문을 반드시 잠그고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도록 지도합시다.
- 밤에 어린이가 혼자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며, 낮에 나가는 경우에도 어른에게 알리도록 하고, 반드시 주의사항을 알려줍시다.

### 3) 안전사고의 특성 및 가정내 안전의 중요성

도입부분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엄마, 아빠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본 자료의 목적을 기술한다.

특히 취학 전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유아기는 어느 시기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며, 발달 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신체 기능의 발달은 미숙해 신체 균형 유지능력이나 운동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과 자기 조절 및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어린이가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

경조성과 동시에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 습관을 교육받아야 한다.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안전교육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생애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따라서 본 자료가 부모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취학 전 어린이 및 영유아가 가정에서 교육받아야 할 안전교육내용을 폭 넓게 다루어 총체적인 안전교육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가정이 의외로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못한 사례를 든다.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 미끄러운 타일바닥, 뜨거운 음식 등 어린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가정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골절, 뇌진탕, 손가락절단, 화상, 질식, 중독, 익사 등의 사고는 평생의 장애를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 통계를 신는다.

〈표 6-1〉 가정내 안전사고 종류 및 원인

안전사고의 종류	안전사고 원인
충돌사고	• 의자, 책상, 침대, 탁자 등
날카로운 물품에 의한 사고	• 칼, 카르텝, 젓가락, 체칼, 귀후비개, 면도기, 윈터치켄 등
미끄러짐 및 추락 사고	• 계단, 화장실, 목욕탕, 방, 침실, 침대, 의자, 베란다, 소파, 책상, 식탁 등
협착·끼임 사고	• 대문, 현관문, 창문, 싱크대, 장롱, 자전거 체인 등
화상, 감전 사고	• 뜨거운 물, 커피, (컵)라면, 조리기기, 전기콘센트 등
중독, 질식사고	• 약물, 가스 등

특히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중 97.3%가 사용상부주의로 나타나 많은 가정내 사고가 물품이나 시설상의 하자보다는 보호자의 부주의와 안전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로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님의 안전인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 나. 본문

##### 1) 가정내 영역별 안전: 안전한 우리 집, 위험한 우리 집

취학 전 어린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구조와 가구, 생활용품 등의 배열과 위치를 잘 설정하고 늘 정리정돈하며 아이에게 안전한 행동요령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특히 가정안전은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실현 가능하므로 먼저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부족한 부분의 정비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영역별로 주의할 사항을 담는다

##### 가) 방·거실에서의 유의사항

- 벽에 무거운 물건을 걸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습니다. 벽에 물건을 걸었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걸려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아이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테이블 위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 아이들 방에는 가벼운 가구를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구를 끌고 다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창문의 모양에 따라 안전고리를 설치하고 2층의 창문에는 반드시 안전망이나 난간을 설치합니다.
- 창틀 위에 어떤 물건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꺼내기 위해 기어올라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텔레비전의 뒷부분을 만지지 못하도록 설치합니다.
- 난방기구나 히터, 선풍기에는 보호망을 설치합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지

- 않도록 하고,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아이가 자고 있거나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 선풍기, 히터 등을 켜두지 말아야 합니다.
- 콘센트에 안전덮개를 설치합니다.
- 가전제품은 사용 후 반드시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둡니다.
- 다리미를 켜둔 채로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합니다.
-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놓고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발판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두지 않습니다.
- 아이를 안고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의 베란다에 나가 바깥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때 아이들은 부모가 없을 때도 곧잘 베란다에 나가 바깥을 내려다보고 아래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기 위해 위험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 베란다와 창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아이 혼자 문을 열 수 없도록 합니다. 공기순환을 위해 창문을 열 때도 안전장치를 합니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 출입문의 슬라이딩 속도를 조절해 아이의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합니다.

#### 나) 부엌에서의 주의사항

- 부엌 바닥에 물기가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 날카로운 물건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위험을 평소에 알려줍니다.
- 항상 가스의 중간 밸브를 잠그며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 냄비의 손잡이가 안쪽을 향하도록 하고 바닥이 좁은 냄비의 경우 특별히 취급에 주의합니다.
- 아이가 싱크대 서랍을 잡아당겨 식기, 칼 등이 바닥에 쏟아져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 잠금 장치를 합니다.



- 튀김요리 시에는 아이의 출입을 막습니다.
- 전기밥솥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 유독 물질, 약품을 음료수 병에 담거나 냉장고에 넣어 두지 않습니다.
- 부엌에 비상용 소화기를 설치합니다.
- 식탁보를 잡아당겨 식탁의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식탁보를 깔지 않습니다

#### 다) 욕실에서 주의할 사항

- 3세 미만의 유아는 욕조에서 익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화나 방문인이 온 경우에도 혼자 욕실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 전기콘센트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욕실 바닥과 욕조에 물기가 없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합니다.
- 욕조가 설치된 벽면에는 손잡이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뜨거운 물의 온도는 49℃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 미끄럽지 않고 발에 맞는 슬리퍼를 신기도록 합니다.
- 욕조 내에서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수도꼭지에 보호덮개를 씌웁니다.
- 세면대가 아이의 키에 맞지 않을 경우 받침대를 주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바닥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 세면대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벽에 부착된 세면대에 아이를 앉히지 않습니다.
- 세안용품, 세제 등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변기뚜껑은 반드시 닫아 둡니다.

라) 현관에서 유의할 사항

- 신발이나 가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현관에는 조명을 설치합니다.
- 우천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장치를 합니다
- 현관문에 손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필요하다면 안전장치(도어체크 등)를 설치하거나 문이 닫히는 속도를 임의로 조절해 사용합니다.

마) 다용도실, 지하실, 계단 등에서 주의할 사항

-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 반드시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불을 켜고 이용하도록 합니다.
- 아이가 물건을 던고 올라가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잡아당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 어두운 곳에 혼자 들어가거나 놀이 시 숨는 장소로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 보일러실에는 아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보일러기와 전선 등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계단의 조명은 항상 밝게 하고 계단 옆의 벽에 시선이 집중되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지 않습니다.

2) 화재와 화상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한 화재에 의한 상해를 최소화하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화재의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환경에서 위험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어린이도 화재 및 화상의 원인을 알고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이에게 화재와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행동교육을 시켜야 하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지침,

불이 나면,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대피방법 등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 가) 화재예방을 위한 지침

##### □ 주의사항

- 여행을 하거나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 가전제품의 전원을 빼둡니다.
- 비누 거품을 이용하여 가스의 누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가스 누출 자동차단기를 설치합니다.
- 담배꽂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화재 시 행동요령, 대피방법을 숙지시킵니다.
- 불장난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아이들에게 주의시킬 점

- “성냥이나 라이터, 촛불 등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 “껍질이 벗겨진 전선을 보면 어른들께 알립니다.”
- “나무, 기름, 종이가 많은 곳이나 잔디, 숲에서는 화약, 폭죽 등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 “전자레인지에는 반드시 은박지를 벗기고 음식을 넣습니다.”

#### 나) 소화기 사용법

-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옵니다.
- 소화기 안전핀을 뽑습니다.(그림)
- 바람을 뒤로 하고 서서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으세요. 손잡이를 꼭 잡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소화액을 뿌립니다.

#### 다) 화재시 대피방법

- ① 수건이나 헝겊에 물을 적셔 코에 대고 숨을 쉽니다.

- ② 대피할 때는 무릎과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 자세로 엎드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 ③ 불이 몸에 붙으면 일단 멈추고 엎드린 후 구르면서 불을 꺼야 합니다.
- ④ 비상구와 계단을 이용하여 빨리 피하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 ⑤ 무섭다고 건물 안의 구석진 곳에 숨지 않습니다.
- ⑥ 함부로 문을 열거나 손잡이를 만지지 않습니다. 특히 손잡이가 뜨겁고 연기가 새어 들어올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⑦ 물건을 찾으러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⑧ 위급하다고 함부로 뛰어내리지 말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 3) 중독과 질식

어린이는 독성 화학물에 대한 구별 및 사용능력이 부족해 중독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영아의 경우 손에 쥔 물체를 입으로 가져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장난감이나 고형음식이 잘못하여 갑자기 기도를 막아 유아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는 사고 역시 유아기에 빈번히 발생하며 1세 미만 영아 사망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중독사고의 유형

- ① 약물에 의한 중독사고: 약물과다 복용으로 일어나며 어린이는 철분제, 항우울제에 민감하므로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는 설명에 따라 정량 투여해야 합니다.
- ② 가정용품에 의한 중독사고: 세제는 비눗방울이 기도를 막을 수 있고 표백제와 각종 부식제(오븐 세척액, 식기 세척액 등)는 심한 화상을 유발하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용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③ 식중독: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의 섭취나 음식의 조리,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된 음식을 어린이가 먹을 경우 소화기, 순환기 및 호흡기 등에 원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나) 중독 예방법

##### 주의 사항

- 중독위험이 있는 약품은 서랍이나 장에 넣고 잠금 장치를 하여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정기적으로 가정 내의 약품과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 모든 약품을 원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한 물질에는 표시를 합니다.
- 약품과 화학용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습니다.
- 아이에게 약을 ‘사탕’ 또는 ‘달다’라는 말을 하지말고 약은 부모님이 줄 때만 먹는 것이라고 지도합니다.

#####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주의시키세요!

- “약은 반드시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 먹습니다.”
- “욕실과 부엌에 있는 세제·약품은 부모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꼭 확인하고 먹어야 해요”

#### 다) 질식 예방법

##### 주의 사항

- 누워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 4세 이하의 영아에게는 둥근 형태의 식품이 위험할 수 있다. 포도나 핫도그, 곤약 젤리, 딱딱한 사탕, 당근, 씨앗, 팝콘, 땅콩 등과 같이 둥글고 딱딱한 음식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두, 복숭아 등 큰 씨앗이 있는 과일은 칼로 잘라서 먹게 하고 통째로 주지 않습니다.
- 입에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웃거나 울게, 또는 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껌에 주의합니다.
-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는 엷어 채우지 않고, 폭신한 침구를 주지 않으며 수유 시에도 주의합니다.
- 물침대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트리스 보호용 비닐을 깔지 않습니다.
-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거나 얼굴에 대면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주의시키세요!

-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 위험합니다. 목에 걸려 숨이 막히거나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 “음식을 입에 넣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4) 교통안전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53.6%가 취학 전 어린이인 것을 보면(도로교통안전협회, 1995) 성인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학 전 어린이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도로환경의 정비,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큰 길은 물론 집앞이나, 골목 길 등에서 어린이 자신이 위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행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가) 보행시

## □ 주의 사항

-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가방은 등에 매도록 지도합니다.
- 자동차는 손을 든다고 해서 항상 멈추지 않으며 멈춰있는 차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합니다.
- 차가 다니는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를 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자동차 뒤에서는 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평상시 공사장 등 위험한 곳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길로 다니도록 지도합니다.
- 길 건너는 요령을 알려준 뒤 외출시 함께 연습하여 완전히 숙지하도록 합니다.

## □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주의시키세요!

- “꼭 인도로 걸어요. 골목에서 차도로 나올 때 뛰지 않습니다.”
-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밝은 곳으로 다녀요.”
- “비가 올 때는 가방은 등에 매고 우산을 높이 똑바로 들어서 앞이 잘 보이도록 하세요.”

## 나) 버스 이용 시

## □ 주의 사항

- 창 밖으로 머리, 손등을 내밀거나 물건을 던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지도합니다.
- 고속버스 이용시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합니다.
- 버스에서 내릴 때 어른이 먼저 내리고 아이를 내려 줍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주변을 살피고 내리도록 지도합니다.

- 차도로 내려서지 않고 보도에서 차례로 줄을 서도록 지도합니다.

□ 주의시키세요!

- “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꼭 인도에서 기다리세요.”
-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에 차도로 내려가 버스에 타세요.”
- “버스에 오르고 내릴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 승용차 이용시

□ 주의 사항

- 승하차시 아이는 먼저 태우고 나중에 내리게 합니다.
- 승용차의 경우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 밀폐된 차안에 아이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 차 문이나 창문 잠금 장치를 활용해 주행중 차 문을 여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 안전벨트(보호장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 키 120cm 미만의 어린이는 어린이용 보호 장구에 앉은 후에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 주의시키세요!

- “반드시 뒷좌석에 앉으세요.”
- “안전띠를 꼬이지 않게 잘 펴서 매세요”
- “차안에 있는 핸들, 브레이크 등을 함부로 건드리면 매우 위험해요.”

라) 지하철, 기차 이용시

□ 주의 사항

- 아이의 지하철, 기차 승하차시에는 반드시 어른이 동행하도록 합니다.



- 문이 닫힐 때는 다음 기차를 이용하도록 지도합니다.
- 열차가 멈추면 양옆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다음 타도록 지도합니다.
- 열차 안에서 장난치며 돌아다니거나 열차와 열차 사이를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주의시키세요!

- “꼭 안전선 안에서 기다리세요.”
- “승강장에 내려설 때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열차 칸 사이를 이동해 다니면 위험해요”

## 5) 놀이와 운동

가정이나 골목길,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놀이할 때도 위험을 따르게 된다. 어린이 놀이 사고는 여러 가지 장난감과 놀이 기구에 의해 발생하며 킥보드를 탈 때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비비탄총을 사용할 때와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최근에는 힐리스 운동화 이용시에 발생한 사고들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어린이 놀이터 사고의 경우 미끄럼틀과 그네에서 사고의 20% 정도가 발생한다.

놀이와 운동할 때 조심할 내용을 실내놀이, 실외놀이, 동물에 대한 안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실내놀이

- 안전한 놀이감을 이용하도록 하고 놀이시 부모가 지켜보도록 합니다.
- 유아용 놀이감 구입의 4가지 지침(4S)
  - 크기: 최소한 35mm 필름통 크기 이상
  - 모양: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끝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함

- 표면과 내용물: 표면의 칠이 무독성이어야 하고, 내용물은 비휘발성이어야 함
- 끈: 끈이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목을 감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놀이를 할 때는 거실, 방 등 평평한 곳에서 쓰러질 수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합니다.
- 놀이기구 이용시 추락, 미끄러짐에 대비해 바닥에 매트를 깔아 완충작용을 하도록 합니다.
- 러닝머신 등의 실내운동기구를 아이 혼자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틈새에 손이나 신체의 일부가 끼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실내에서는 실외 놀이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합니다.

#### 나) 실외놀이와 운동

- 실외 놀이 시에는 밝은 색의 단정한 옷을 입고 발에 맞고 밝은 색의 신발을 신게 합니다.
- 자전거, 스케이트 보드,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후 타게 합니다.
- 취학 전 어린이에게 되도록 자전거를 사주지 않습니다.
- 헬멧과 무릎·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차도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차나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타도록 지도합니다.
- 야간에는 가급적 타지 않도록 합니다.
- 폭이 넓은 외투나 치마, 끈이 달린 옷은 입히지 않습니다.

#### 다) 동물에 대한 안전

- 길거리나 놀이터 등에서 자유로이 풀려 있는 낯선 개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개를 만지거나 안을 때, 개가 핥거나 핥킬 때 개의 분비물이나 침을 통해 여러 가지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를 기를 때는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예방주사를 꼭 맞히며 배설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다람쥐나 햄스터, 거북이 등을 실내에서 사육할 경우 데려오기 전에 아이가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뿐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물거나 핥킬 수 있으며 털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병원균으로 인해 사람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지도합니다.

라)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주의시키세요!

- “장난감 총을 사람에게 겨누지 않도록 해요.”
- “놀이터에서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해요.”
- “아파트 단지내, 집안, 도로변에서 키포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지 않도록 해요.”
- “반드시 어른이 지켜보는 데서 수영을 해요”
- “스키, 인라인스케이트 등 각종 운동시 안전복장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세요.”
- “막대사탕, 아이스크림, 뽕족한 긴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 “낮선 동물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핥거나 물 수 있어요.”
-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건드리면 안 돼요.”

6) 유괴와 성폭력

유괴는 계획된 범죄이고 미아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성인에 대한 복종이나 절대적인 신뢰를 당연한 것으로 교육받아 왔고, 자신에 대한 애정표현과 성 폭력적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을 이용해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가) 유괴사고

-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말로만 알려주고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 어떤 이유에서라도 낯선 차는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 늦게까지 집밖에서 놀지 않도록 하고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잠그게 하고 함부로 열어 주지 않게 합니다.
-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등을 부모의 허락 없이는 받거나 먹지 못하게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부모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
- 집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외우게 하고 영아의 경우 연락처가 기재된 팔찌를 달아주도록 합니다.

#### 나) 성폭력

- 아이가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아이가 평소 성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낼 때 회피하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 당했을 때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피하게 합니다.
- 나쁜 일이 일어난 후 부모에게 절대 비밀로 하라고 범인이 강요해도 반드시 부모에게 사실을 알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여 친구를 데리고 가면 즉시 근처의 다른 어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주의시키세요!

-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르는 차도 절대로 타지 마세요.”
- “외출시에는 부모님께 어디에 누구와 가는지 알리고 귀가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됩니다.”
- “집 전화번호·주소는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 “아는 사람이라도 기분 나쁜 행동을 요구하면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피하세요.”
- “나쁜 일이 일어나서 비밀로 하기로 했어도 부모님에게는 꼭 말해야 합니다.”

7) 응급처치 요령

응급처치 영역은 목에 무엇이 걸리거나 물에 빠지는 등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출혈, 경도화상, 해충·동물 등에 물렸을 때, 중독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구성한다. 대부분의 가정은 집 부근에 의료기관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에 가기 전까지의 부모의 응급조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 목에 무엇이 걸렸거나 물에 빠졌을 때(기도가 막혔을 경우)

□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① 먼저 막힌 것과 물을 토하게 합니다.
- ② 기도를 엽니다.(고개를 젖혀 위를 향하게 눕히고 어깨 아래에 등근 타월 등을 넣어 턱이 뒤로 젖혀지게 합니다.)
- ③ 호흡이 멈추었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 아기의 경우 코를 어른의 입으로 덮고 3초에 1회 숨을 불어넣고 유아는 코를 막고 입으로 4초에 1회 정도 숨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는 시간은 1.5~2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 ④ 인공호흡을 2회 반복하고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⑤ 환자를 옮길 때에는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즉시 119에 연락합니다.
  - ⑦ 환자를 따뜻하게 하여 쇼크를 예방합니다.
-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모른다면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 나) 출혈

- 날카로운 것에 베어서 출혈이 생길 경우 심장에 가까운 곳을 붕대로 묶고 바로 응급실로 갑니다.
- 까진 상처나 조금 베인 상처는 흐르는 수돗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독약으로 소독합니다.
- 못이나 유리 등에 찔렸을 때에는 파상풍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로 응급실로 갑니다.
- 긴 못 등 긴 것에 찔렸을 때에는 빼지 말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다) 경도 화상

- 화상면적이 손바닥보다 작은 경우 차가운 수도물에 20분 이상 식히도록 합니다.
- 옷 위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경우에는 무리해서 옷을 벗기려 하지 말고 가위로 옷을 잘라서 제거합니다.

- 욕조에 남아있는 물, 알로에, 감자 등으로 화상부위를 덮으면 세균이 감염되어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 화상 부위가 크거나 화재 현장에서 입과 코가 그을려 뜨거운 연기를 맡았다고 생각되면 119를 불러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 라) 해충·동물 등에 물렸을 때

- 물린 곳을 비누와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 해충이나 동물에 물리면 알러지 반응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 홍반, 부어오름, 진물 등이 난 것은 감염이 된 것이므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개나 고양이 등에 물렸을 때는 공수병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타 파상풍 균 등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중독

- 중독 환자가 어떤 약품 때문에 중독이 되었는지 모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잘 살펴서 대처해야 합니다.
- 의약품의 뚜껑이 열려있는지
- 화학물질이 쏟아져 있는 것은 없는지
- 입 주위에 화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 호흡을 관찰했을 때 화학물질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 구토를 하고 있지 않은지
- 호흡곤란이 오는지
- 기타 예상치 못한 증상을 보이는지

- 토하게 하는 것이 응급 처치법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일단 119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어떤 물질에 중독되었는지를 안다면 (예: 청소용 클리너 등) 그 물질 라벨의 주의사항을 살펴봅니다.

#### 다. 마무리 부분

마무리 부분은 안전관련 추천 사이트와 안전 체크리스트로 구성한다.

##### 1) 추천 사이트

다음과 같은 안전 관련 사이트를 수록한다.

- 세이프키즈 코리아 (<http://www.safekids.or.kr>)
  -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놀이터 안전 등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및 통계 자료 제공
- 꼬마안전짱 (<http://ccoma.redcross.ac.kr>)
  - 어린이 안전교실, 사고예방, 응급처치, 게임 천국, 혼자 배울수 있어요 교실 제공
- 인터넷 어린이안전학교 (<http://www.go119.org>)
  - 교통, 화재, 학교, 가스, 식품, 놀이안전교실, 교통공원 예약, 지역별 신고센터 정보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http://www.childsafe.or.kr>)
  - 안전재단 소개, 사업 안내, 사고판례, 안전수칙, 위험시설 제보, 어린이 안전 정보 제공
- 어린이 안전학교 (<http://www.isafeschool.com>)
  - 안전교육을 위한 야외학습장, 다양한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한국아동안전관리협회 (<http://www.kisel.or.kr>)
  - 아동 및 교통 안전교육 지도사 자격 안내, 아동안전 체험박람회 정보 제공
- 보건사회연구원 ‘건강길라잡이’ (<http://healthguide.kihasa.re.kr>)
  - 안전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에 대한 다양한 자료 제공
- 어린이 응급처치법( <http://user.chollian.net/~tonghsea/fire09.html>)
  - 사고 발생시 요구되는 응급처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
- 중앙119 구조대(<http://www.rescue.go.kr>)
  -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자료 및 각종 안전정보 제공

## 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맨 마지막에는 일상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수록한다. 여기에는 본문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제 4 절 활용 및 기대효과

### 1. 이용대상 및 활용방법

개발된 “엄마 아빠, 나를 지켜주세요!”는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용 안전 교육 자료이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등 유아이용기관을 통하여 보급함으로써 부모가 직접 또는 교사가 부모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보건소와 같이 영유아 부모의 이용이 많은 기관에 비치하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안전 관련 사이트에 배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 2. 기대효과

아동안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각종 물품에 의한 사고, 약물이나 세제 등 생활용품에 의한 중독 사고, 놀이용품에 의한 사고, 화재, 성범죄 등 다양한 아동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시시켜 부모의 안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 아울러 이동할 때 주의가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 제 7 장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안전 관련 제도 및 안전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로 가정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정에서 각종 물품에 의한 사고, 약물이나 세제 등 생활용품에 의한 중독사고, 놀이용품에 의한 사고, 화재, 성범죄 등 다양한 아동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시시켜 부모의 안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 아울러 이동할 때 주의가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자료의 개발은 결론으로 어린이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건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안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위해정보 수집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위해정보 수집을 통하여 사고 발생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예방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련 각종 정보와 자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정보센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구축하려는 안전방송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 전반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통하여 안전법규준수, 정부 및 민간의 통합된 안전문화 운동 전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 안전경시 풍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범 국민적 안전의식의 확산과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생활 속에서 안전이 체질화,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한순간의 주의 소홀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물품,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로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녀 안전교육과 함께 수시로 가정내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를 구비하여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용품 및 가정용품을 구입·설치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넷째,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임을 감안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부모, 유아교육기관 교사 등 어린이의 생활과 밀접한 보호자의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 재정 확보, 다양한 교구와 교수자료의 개발 및 보급,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실천과 활성화,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낙근, 『교수방법』, 서울: 보고사, 1997.
- 강희숙, 「어린이 우발사고 요인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곽은복,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서울:창지사, 2001.
- 곽은복,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경찰청,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2003.
- 교육부,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지도자료』, 2000.
- 김경희,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미나, 「유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모형 개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신정,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7(1), 2001, pp.118~140.
- 김은경,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및 교사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일옥·이지형,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3(1), 2001, pp.31~46.
-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사고통계분석』, 1995.
- 박남도, 「유아 교통안전 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상희, 『유아안전교육』, 삼광출판사, 2002.
- 박용도, 「유치원교사의 안전교육 실태와 인식도 조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변용찬 외, 『표준보육과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배정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간호학회지』, 9(2), 2003, pp.162~172.
- 보건복지부,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2000.
- \_\_\_\_\_, 『지역사회 어린이 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컴퓨터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도 평가』, 2001.
- \_\_\_\_\_,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2001.
- 서채문, 『인간과 건강』, 서울: 태근문화사, 1994.
- 선희숙, 「교통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유미숙,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현숙·이용성, 「미국·독일의 어린이 안전 제도」, 『소비자 시대』, 186, 2003, pp.25~27.
- 유혜경,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윤선화, 『유아교육기관 안전에 관한 이론과 실제』, 1999학년도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1999.
- \_\_\_\_\_, 『유아안전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서울특별시 남부유치원연합회, 2000.

- \_\_\_\_\_, 『자녀의 사고방지와 안전대책』, 한국안전생활교육회, 2001.
- \_\_\_\_\_, 『어린이 안전교육 및 홍보 방안』, 어린이 안전대토론회 자료, 한국 소비자보호원, 2002.
- 윤용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기숙·장영희·정미라 외,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서울: 양서원, 1997.
- 이명자,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에 대한 유아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양희, 『부모안전교육과 부모상담』, 제2기 아동안전교육 전문가연수자료집, 2001.
- 임지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안전 지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장지현,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영호, 『사고사로 인한 손실소득액 추계』, 『보건복지포럼』 제65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정인숙,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사고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명해, 『유치원 안전사고의 환경적 요인과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3.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발생 유형』, 2001.
- 한국교육개발원, 『어린이 안전교육 지침서』, 1995.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교육 지도안-국민학교 교사용』, 1995.

- \_\_\_\_\_, 『유아교사용 안전교육 지도서』, 1996.
- 한국소비자보호원, 『영·유아 가정내 안전실태 조사결과』, 1999.
- \_\_\_\_\_,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2002.
- \_\_\_\_\_,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2003.
- \_\_\_\_\_, 『어린이 안전 선진화 종합대책』, 2003.
- 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아동발달 특성과 안전』, 학문사, 2003.
- \_\_\_\_\_, 『아동안전교육개론, 학문사』, 2003.
- \_\_\_\_\_, 『아동안전교육지도론, 학문사』, 2003.
-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미·일 어린이 안전생활교육의 실태와 우리 방향 세미나 자료집』, 1993.
- AST, M. E., "Preschool children's conceptualization of safety and moral rule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1995.
-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Clerk, E. A. and Simmons, R. A., "Can preschool children learn safety skill?: Evaluation of the safe at home curriculu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training Conference of the Nation Head Start Association, Montreal, 1986.
- Conger, J. J., *Adolescence and Youth: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Happer and Row Publishers, NY, 1977.
- Florio, A. E. and Alles, W. F., *Safety education*, Mcgrow Hill, Inc., NY, 1979.
- Freda, B., *Developing personal safety skills on children*,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ing, 1995.
- Gordon J. E., "Epidemiology of Accidents", *AJPH*, 39(4), 1948, pp.504~515.



- Haddon, W. Jr., *Accident Research: Methods and Approaches*, Harper&Row, Publishers, Incorporated, NY, 1970.
- Heinrich, H. W., et al.,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5th ed., Mcgrow Hill, Inc., NY, 1980.
- Hughes, K., "Food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Missouri Extension University, 1992.
- Izzoni, L. A., "What research says to the educator: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ffective domai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0(4), 1989, pp.124~148.
- Jones, R. T. and Haney, J. I., "Social validation and training of emergency fire safety skills for potential injury prevention and life sav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4, 1981, pp.249~260.
- Miller D. F., *Safety: Principles and Issues*, Brown&Benchmark, 1995.
- Peterson, L. and Mori, L., "Prevention of child injury: An overview of targets, method and tactics for psycholog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1985, pp.586~595.
- Pickle, B., "Increasing safety awareness of preschoolers through a safety education program, Nova University", 1989.
- Robertson, C., *Safety, Nutrition and Health in Early Education*, Thomson, 1998.
- Rosenbaum, M. S. and Drabman, R. S., "Training preschool children to identify emergency situations and make emergency phone calls", *Behavior Therapy*, 12, 1981, pp.425~435.
- Scott, R. J., "Preventing injury: A safety curriculum for preschool-kindergarten",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Albama University, 1992.
- Sleer, D. A., Egger, G. and Albuny, P., "Injury as a Public Health Problem",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ustralia*, 1(2), 1991, pp.4~9.

UNICEF, "A League table of Child Deaths by Injury in Rich Nations", Innocent report card.2, 2001.

Yeaton, W. H. and Bailey, J. S., "Teaching pedestrian safety skills to young children: an analysis and one year follow-up",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1, 1978, pp.315~329.

## 부 록

I.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조치 권고」 / 143

II. 미국 CPSC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145

## 부록 1.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조치 권고」

회원국들의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망 및 중경상 사고 중 1~15세 사이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바, 의료자원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이러한 사고의 상당수는 예방이 가능함을 고려해야 한다.

### □ 제품안전요건 및 기준(Product Safety Requirement and Standards)

- 회원국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어린이용 제품과 그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의 제품들이 정상적인 사용시나 예상되는 오용의 경우에도 설계, 제작 또는 구성성분의 결함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회원국 정부는 관련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자발적 협조나 적절한 법규를 통해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회원국 정보는 어린이 사고와 관련된 데이터가 충분할 만큼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은 제품, 특히 어린이가 복용했을 때 위험한 의약품에 대해 어린이 보호용 포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 □ 사고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

- 어린이가 관련된 사고를 규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심의회 권고안(C(77) 130(최종판)에 제시된 소비제품 위해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 회원국은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도에 관해 유용한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기타 자료 제공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또는 어린이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계된 기타 문제들이 적절한 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주의 깊게 검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레벨 부착, 홍보 및 교육

- 회원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본래 의도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나 어린이들에게 흔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잘못된 사용 시에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즉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적절한 경고나 정보를 부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안전표시(symbols)의 채택을 명문화할 때, 회원국 정부는 무역장벽을 피하고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효율적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시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대중이 소비 제품에 부착된 경고용 표시를 알 수 있도록 명백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회원국 정부는 어린이 사고예방에 관해 적절하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회원국 정부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권장해야 한다.

□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효율성 검토

- 회원국 정부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어린이 사고예방과 관련된 자원 배분을 포함한 기존의 협정, 특히 정부 부문 내에 있는 협정을 검토하고 어린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회원국 정부는 새로운 안전법규와 제품관련 금지규정 그리고 당국과 관계되는 한도 내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결함 상품의 회수 및 연구 프로젝트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의해 운용되는 비공식 통지절차에 의하여 회원국에 통보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록 II. 미국 CPSC<sup>1)</sup>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1. 부엌에서

- 칼, 플라스틱 백, 라이터, 성냥은 어린이가 손대지 못하도록 잠귀 둘 것
- 조리 중에 자리를 떠나거나 냄비의 손잡이를 스토브 뒤쪽으로 돌려놓거나 뜨거운 액체나 음식을 탁자의 모서리에 덩으로써 화재와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을 피할 것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멈춤, 떨어뜨림, 구르기의 일련의 과정을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숙지시킬 것
- 가전 기구의 플러그를 빼놓은 상태로 고정시킬 것. 닳은 전선은 반드시 교체할 것
- 어린이를 하이 체어(어린이용 식탁 의자), 그네, 기타 어린이 제품에 앉힐 때에는 안전벨트를 꼭 채울 것
- 어린이에게 딱딱한 캔디, 건과류, 포도, 팝콘, 당근, 건포도 같은 목에 걸릴 수 있는 딱딱하고 둥근 음식물은 주지 말 것
- 정수기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는 어린이의 접근을 막아 뜨거운 증기 등에 의한 화상을 피할 것

## 2. 침실에서

- 침실 외에 집안에 화재 경보기(연기 감지 알람)를 설치할 것. 보호를 강화하려면 각 침실에도 설치할 것.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경보기를 점검하고 배터리는 일년에 한번 이상 갈아 줄 것
- 화재 탈출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지역 모임도 확인 해 둘 것
- 유아를 유아용 침대(바가 있는 침대)에서 등을 바닥으로 해서 재울 때에는

---

1)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임.

베개를 베지 않도록 하거나 부드러운 침구를 깔아 줄 것

- 유아용 침대를 사용할 때에는 국내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하되 매트리스는 잘 맞고 아늑한 것으로 사용할 것
- 어린아이나 아기의 침대에는 전기요를 절대 사용하지 말 것
- 작은 완구, 풍선, 작은 공은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할 것
- 완구를 고를 때에는 연령 표시를 확인할 것. 완구 정리 서랍에는 안전 뚜껑 지지대(safety lids supports)가 있어야 함.
- 목 졸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블라인드용 술 장식을 사용하고 완구나 노리개 젓꼭지에 끈을 달지 말 것
-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감지알람을 침실 밖에 설치함.

### 3. 욕실에서

-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이나 비타민이 어린이가 풀기 힘들게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어린이가 손대지 못하는 곳에 잠궤둘 것
- 욕실에 특히 목욕 중인 어린이를 혼자 남겨두지 말 것
- 목욕 전에 항상 손목이나 팔꿈치로 물이 너무 뜨겁지 않음을 확인할 것
- 뜨거운 증기나 물에 의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 끓이기 온도계를 화씨 120도에 셋팅해 두고 반 화상 기기를 설치할 것
- 욕조와 샤워기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와 손잡이 바를 설치할 것
- 헤어 드라이어 같은 가전 기기는 어린이의 손과 물이 닿지 않게 할 것

### 4. 모든 생활 장소/구역

- 천식 예방을 위해서는 곰팡이, 먼지,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의 근원을 제거할 것. 애완동물과 깔개 등을 깨끗이 하고 가구 등에 오르지 못하게 할 것
- 담배를 피울 경우 집안에서 특히 어린이 주위에서 피우는 것을 금할 것

- 난로, 벽난로, 나무를 태우는 난로, 실내용 난방기구, 가정용 가스 기기는 적절하게 환기시키고 매년 검사할 것
- 계단과 같은 위험한 장소를 차단하도록 한 안전문, 콘센트의 구멍을 막는 안전 플러그, 서랍이나 캐비닛의 안전 빗장을 사용할 것
- 어린이가 기어오를 만한 가구나 유리창에서 어린이를 떼어놓을 것
- 비상출입구의 유리에 안전장치를 할 것
-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도와 계단에 적절한 조명을 하고 미끄럼방지 를 위해 플러그를 바닥에 고정시킬 것
- 세정제, 살충제, 기타 잠재적 위험 물질은 라벨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어린이가 손대지 않도록 보관할 것
-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은 납이 함유된 페인트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함. 1-888-LEADLIST에 전화하여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납중독에 대해 어린이를 테스트를 해야한다면 주치의와 보건소에 문의할 것
- 총기류가 있다면 총구와 탄약을 따로 보관하고 어린이가 닿지 않도록 잠궂 들 것
- 응급처치와 인공호흡법을 익혀 둘 것
- 지역 독극물관리센터, 내과 의사, 병원응급실을 포함해서 최신 응급전화 목록을 집안 각 전화 옆에 붙여둘 것
- 라돈에 대해 집안을 테스트 할 것. 만약 EPA 권장 기준을 넘기면 1-800-557-2366에 문의하여 수치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함.
- 자연 재해 시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함. 지진의 경우 바닥에 엎드리고 가리기에 단단한 것을 덮어써야 함. 그리고 토네이 도의 경우 지하실이나 유리창이 없는 집안의 공간으로 피해야 함. 또한 허리케인의 경우 창문으로부터 피해야 함. 몸을 피할 때에는 이용하기 편리 한 음식물이나 회중등, 음용수 등을 가지고 가야 함.